



미주동문 알래스카 크루즈로 화합 다져

제21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지난 7월 8~15일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모국 방문단이 미주동창회 초청을 받아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겸해 열린 제21차 평의원회에 참석했다. <관련기사 3~4면>

10월 21일 일요일에 만나요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

제33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대회를 오는 10월 21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교내(미술관·박물관·규장각)를 탐방하거나 관악산을 등반하고 교내 버들골에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12년 10월 21일(일요일)
오전 9시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대회장소 : 모교 노천강당 앞 버들골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회비 : 없음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등

△경 품 : 풍성한 선물 추천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문의전화 :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서울대학교 총장 吳 然 天

관악출추

대선을 앞두고 대학을 평준화하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 중에는 서울대학교 폐교론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국립대학을 일원화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학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들 정책은 이미 盧武鉉정권 때 시도된 것이었는데 또 다시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안타깝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구상은 국립대학을 평준화해 서울대와 지방대학을 균질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과 프랑스의 넘버 대학 등의 예를 들고 그럴 벤치마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UC버클리나

UCLA 등이 다른 캘리포니아대학보다 월등 질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있다. 또 프랑스에도 파리 제1대학에서 제4대학까지는 다른 대학보다 수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사실 미국에서는 전통있는 사립대학들이 최우수대학으로 랭킹돼 있으며 이들 대학은 한국처럼 수도에 몰려 있지 않다. 교육후발국가였던 미국이 세계의 학문을 선도하게 된 것은 사립대학이 풍부한 재원을 조달해 소수정예학생을 교육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국립대학은 없고 주립대학이 있다. 주립대학은 주재정의 빈약으로 점차 낙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미국 주립대학을

본받아 평준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평준화를 가져와 대학의 국제적 랭킹을 하락시키고 학문과 기술을 낙후하게 하여 망국의 길로 가겠다는 망발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수월화를 위해 카이스트, 포스텍, 울산과기대 등 새로운 우수대학을 설립했으며 울산과기대는 국립대학 안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화하고 있다. 교육부의 재정으로 국·공·사립대학을 전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법인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첫 시도로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해 법인이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도록 하여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려 하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지방의 몇 국립대학이 법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고교 졸업생 수가 12만명이나 감소해 부실대학이 학생부족으로 폐교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지방

국립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과 소수정예화 법인화를 통해 세계적 대학으로 웅비해야 한다. 그동안 몇 개의 국립대학이 그래도 세계대학의 1백위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평준화(平準化)하려는 것은 표는 알고 인재양성과 교육·학문을 모르는 소치라고 하겠다.

우리의 미래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에 있다. 국립대학의 평준화가 아니라 정예화로, 유명사학과와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의 최우수 대학과 경쟁해 교육입국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노력해야겠다.
(金哲洙논설위원)

대학평준화는 망국의 길

느리나무광장

민주통합당이 대선 교육개혁 공약으로 준비 중인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그럴듯하다. 서울대 등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제로 구축해 강의와 학점 및 교수 교류를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그 효과로 대학 서열화 완화와 과열 입시 경쟁 해소, 고교 교육 정상화, 지역균형 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개혁방안에 반대하자니 좀 켕긴다. 서울대 출신들의 집단이기주의 아니냐는 비난도 솔직히 신경 쓰인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이 가져올 수 있다는 효과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서울대의 정체성을 훼손당하는 것을 막고 싶은 관악인의 常情을 떠나 냉정하게 바라봐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공립대 개혁방안은 허접이 많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주류 또는 변방적 접근을 하는 것을 꼭 나쁘게만 여길 일은 아니다. 민주당의 방안도 나름대로 대학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주류적 고심의 산물일 것이다. 문제는 일거에 기존 제도를 통째로 바꾸려는 근본주의적 접근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국공립대 개혁방안도 그런 위험성이 다분하다.

서울대 폐지가 아니고 서울대의 역사성과 정체성 등을 유지한 채 지방 국공립대들을 서울대만큼 경쟁력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국의 주요 국립대 학부를 통합해 국립대 서울캠퍼스, 국립대 부산캠퍼스, 국립대 광주캠퍼스 등으로 개편하고 서울캠퍼스는 기초학문 분야, 각 지방 캠퍼스는 의학, 공학 등으로 특성화한다면 서울대는 더 이상 서울대가 아니다. 국공립대의 하향 평준화 속에 서울대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박탈되고 말 것이다.

학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가 사라지고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효과도 수궁하기 어렵다. 국공립대 구

조개혁을 통한 서열구조 완화가 실현되기 전에 명문 사립대 중심으로 또 다른 학벌 서열화가 재편·강화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KTX가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서울로 빨아들이는 통로가 됐던 것처럼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지방 인재들의 서울 유입을 제도화하는 통로가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벌 중심주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서울대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누구나 대학, 그것도 서울대 등 유명 대학에 가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강박증, 그리고 그 강박증을 유발하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강박이 과도한 경쟁 압력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교육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당의 국공립대 구조개혁 방안은 바로 이 핵심에 대한 천착 없이 서울대를 희생양 삼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단견이자,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의 색채가 짙다.

서울대를 엉뚱한 수술대에 올리려는 정치권의 돌팔이 공세를 막아내는 데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는 지금 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세계 정상을 향해 전진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 어려운 짐이 서울대와 서울대 동문들의 어깨 위에 있다.

포퓰리즘과 서울대

李 啓 聖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黑.白의 旅程

權 奇 成(행대원 77 - 79)
세명대 석좌교수

나는,
새 하얀 종이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생활,
직장생활,
해외생활,
정년퇴직,

결혼,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상 할아버지,

이젠,
그 하얗던 종이는,
빼곡히 쓰여져, 아주 새까맣게 되어,
더 쓸 餘白이 없다.

이젠 접어야겠다.
아름다운 흑백의 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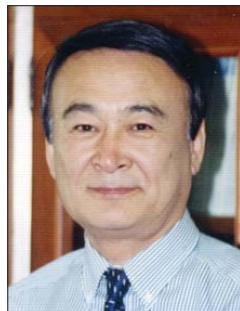
동문칼럼

국회의원 故 諸廷珪동문을 위싱턴에서 만났을 때다. 오랜 반독재 투쟁을 벌여오다 제도 정치권으로 갓 진입한 그에게 내가 물었다. 기자로서 던진 의례적인 질문이었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의 고충이 뭐요?”

그가 깜짝 놀랄 대답을 했다. “오매불망 타도의 대상이었던 그 독재자를 제가 닮아간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다른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내 무의식의 말과 행동 속에 그 독재자의 매내가 나타나는 걸요!”

식사 중에 나온 그의 말을 내가 십수 년 지난 지금까지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함은 그의 언어가 지닌 담력 때문이다.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靈性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언행에



金 勝 雄
(외교61 - 67)
前시사저널 편집국장

李 哲에게 자신의 등록금을 ‘자금’으로 넘겨준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사형이 선고된 柳寅泰와 李 哲에게 그는 “너희들은 참 좋겠다”고 부러워할 정도로 독종이었다.

문제는 이 책의 주제 겸 주인공이었던 ‘독기’가 책의 중반부를 넘기면서부터 ‘손길’한테 그 자리를 내주고 만다는 점이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목동의 철거민촌에서, 때로는 냇마를 줄거나 벽돌공 노릇 중에, 그리고 (당시처럼) 국회 의석에서 그가 수시로 잡혔던 것이 손길, 사랑의 손길, 바로 하나님

의 손길이었던 고백으로 이 책은 끝난다. 책을 덮고 영화 ‘닥터 지바고’의 한 장면이 떠올랐던 기억이 새롭다. 赤軍의 장군이 친동생 지바고의 외동딸을 찾아내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탐문하는 장면이다. 조카딸은 아빠 손에 붙잡힌 채 전란 속을 헤매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훌쩍이며 말한다.

“아빠가 제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결국 迷兒로 여기 저기 전전 끝에 발전소의 여직공이 돼 큰아버지를 만나게 됐노라고

“아버지는 손을 놓는 법이 없단다”

깃든 독재자의 잔재를 감별해낼 만큼 그의 통찰력은 가히 종교적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위싱턴에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1년 후다. 그는 이번에는 별말을 남기지 않고 엉뚱하게 책 한 권만 달렁 전하고 갔다. ‘신부와 벽돌공’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집이었다. 밤새워 그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건 그가 한마디로 오싹할 정도의 독종이었다는 사실이다. 책은 지방 명문고를 1등으로 졸업한 그가 5수 끝에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하던 66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그의 나이 22세로, 그 후 펼쳐진 ‘30년 한국’이 이 책의 배경이다.

재학시절 민청학련 사건 때 諸廷珪동문은 학우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한다. 그 말을 들던 장군은 오랜 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한다. “그건 네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손을 놓는 법이 없단다.”

사실이 그러했다. 어린것의 손을 놓았던 사내는 어머니를 겁탈 후 아내로 데리고 살던 외삼촌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섯 달 후면 우리는 싫든 좋든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한 두 권쯤 저서를 낸 후보한테 표를 던지고 싶다. 이왕이면 故人처럼 독기와 영성으로 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쓴 저서 말이다. 그 주인공 말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李 在 忠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B112호 (장학빌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 702-2233 팩스 (02) 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蔡耕王,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邊榮顯, 朴鉉載, 林香默, 韓知沅

평의원회서 모교·동창회 발전 방안 논의

林光洙회장 격려사 <요지>

미국 전역에 있는 각 지부동창회의 결속력을 다지고 모교 발전에 견인자 역할을 하기 위해 결성된 미주동창회는 그동안 동문들을 폭넓게 규합시키는 사업을 전개해오며 미주동문들의 단합은 물론 미주 한인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英國의 유명한 평론가 존 러스킨(John Ruskin)은 “위대한 사람의 업적은 항상 미래로 통하는 길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미래로 통하는 길이란 선후배 동문들과 모교를 향한 관심과 지원일 것입니다.

저는 동창회장직을 맡으면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해 동창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교육평준화정책에 따라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서울대 폐교론과 국립대학 공동학위제가 논의되자 동창회보를 통해 이의 부당성을 여론화시켰고 ‘國家競爭力과 教育의 秀越性’이라는 책자를 시의적절하게 발간, 要路에 배포함으로써 그 논란을 잠재우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총장님들이 세계 명문대 모임에 나갈 때마다 모교의 역사가 짧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교의 뿌리를 찾기 위한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2년6개월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교 구성원들을 설득, 의견의 일치를 보고 2010년 10월 개교 기념식에서 총장이 이를 선포함으로써 우리 서울대는 세계 명문대학에 손색이 없는 117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역점사업의 하나이며 모교와 후배들의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될 장학빌딩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3일 완공, 건물 임대 사업을 통해 후배들의 장학금과 모교에 연간 4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미래임을 잊지 않고 더욱 힘써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국 시애틀항을 출발해 쥘노, 스캐그웨이, 그레시어 베이, 케치칸, 빅토리아섬 지역을 경유한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에 앞서 설명을 듣고 있다.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제24대 회장단은 미주동창회(회장 金殷宗) 초청을 받아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 제21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공식일정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회장단은 동창회 활성화 방안과 최근 정책으로 이슈화된 ‘서울대 폐지론 및 국·공립대 통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미주 지역 동문들을 격려했다.

본국 동창회 순방단은 林光洙회장, 孔大植·禹仁性·朴成勳·辛鉉雄부회장, 관악회 鄭啓泳이사, 崔鍾燦동문과 가족으로 구성됐으며 미주동창회 宋舜英 前회장, 金殷宗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주 각 지역에서 평의원을 포함해 1백4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홈페이지 문제, 장학기금 운영, 회보 발행 등 미주동창회의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미주동창회는 시카고지부, 남가주지부, 뉴욕지부 등 규모가 큰 지부에서 2년씩 돌아가며 미주지역 본부 역할을 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LA지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며 내년부터 2년간 워싱턴DC 지부에서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한다.

특별히 이번 미주 평의원회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항을 출발해 쥘노(Juneau), 스캐그웨이(Skagway), 그레시어 베이(Glacier Bay), 케치칸(Ketchikan), 빅토리아(Victoria)섬 지역을 경유한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겸해 개최됐다.

미주동창회는 지난 7월 8일 알래스카 크루즈 ‘노르웨이안 피어(Norwegian Pearl)’호 내 바르셀로나룸에서 본국 순방단 및 평의원 환영 전야제를 개최했다.

金殷宗(경제59-63)회장은 본국에서 참석한 동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환영의 인사말을 건넸다. 김회장은 “林光洙회장

님과 회장단이 이렇게 먼 길을 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크루즈를 통해 각 지역에서 오신 서울대 동문과 가족들이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영원히 기본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미국 각지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평의원들과 알래스카 크루즈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서울대 동문들로서 열심히 일해 그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이라고 말했다.

환영 전야제 인사 후 林光洙회장과 金殷宗회장은 평의원회에 참석한 동문들을 소개했다.

이어 시상식에서 金殷宗회장은 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宋舜英(정치52-56)前회장, 뉴욕지부 李俊行(섬유공학48-54)前회장·金昌洙(약학64-68)회장, 중부텍사스지부 李榮宰(경제58-64)회장, 관악후원회 鄭良秀(의학60-66)종신이사·盧明鎬(토목공학61-65)부회장, 회칙위원회 尹相來(수의학62-66)위원, 하틀랜드지부 具明順(간호66-79)회장, 필라델피아지부 朱基陸(수의학68-75)회장, 워싱턴DC지부 宋相會(지질71-75)회장, 북가주지부 李章雨(영문72-76)회장, 조지아지부 박민(음대80입)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각 지부 회장과 평의원들은 전야제 행사에서 소속 지부의 현황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서로의 소

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9일 오전 9시 환영 전야제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1차 평의원회는 50여 명의 평의원들이 참석해 다섯 시간에 걸쳐 동창회 현안문제 해결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평의원회 개최

텍사스지부 창설 승인

미주 평의원회는 각 지부동창회 회장, 차기 회장, 임원 등 약 2백 명이 평의원으로 구성돼 1년에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동창회 살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내년에는 워싱턴DC지부가 주최한다.

成周慶(무역68-72)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金殷宗회장의 제11대 회장단 인수인계 보고, 宋舜英 前회장의 지난 회의록 낭독, 白玉子(국악71-75)총무국장의 사업보고, 池仁洙(상학59-65)편집위원장의 동창회보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金殷宗회장은 “각 지역 평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평의원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미주 평의원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창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林光洙회장은 격려사에서 본회의 주요 역점 사업을 소개하며 “참여정부시 서울대 폐교론과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논의 때 이의 부당성을 여론화시키기 위해 동창회보에 칼럼을 게재하고 ‘국

가경쟁력과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해 논란을 잠재우는데 전력을 다했다”며 “이밖에도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교 구성원을 설득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세계 명문 대학에 손색이 없는 역사와 전통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학빌딩의 수입과 관련해 “건물 임대 사업을 통해 후배들의 장학금과 모교를 지원할 재원이 확보됐다”며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모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려사 요지 참조>

미주동창회는 올해도 ‘브레인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강연회를 오는 9월 22일 LA JJ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는 李塚珍(정치55-59 클리어몬트매케나대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동문의 사회로 河龍出(외교67-71 워싱턴대 한국학 석좌교수)·高秉喆(법학59졸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정치학 명예교수)·車敏榮(의학82졸)동문이 발표자로 참가한다.

金殷宗회장은 미주동창회보 디자인 변경과 중부 텍사스지부동창회 설립 승인을 요청했으며 평의원들은 두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동창회에서 종신이사회의 3분의 1을 사용하는 내용의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허가하도록 합의했다.

姜洙祥(의학47-53 미주동창회 고문)동문은 토의에서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는 회장이 자신의 돈을 내서 행사를 운영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며 “3분의 1이 아니라 동창회비의 75%를 사용해 기금에 구속되지 않고 동창회장직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평의원들은 <4면에 계속>



제21차 평의원회에 참석한 미주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좌로부터 郭先燮이사장, 李源宰사무총장, 李俊行골든클럽 회장, 金榮萬 前회장, 金昌洙회장, 朴尙元수석부회장.

뉴욕지부

새 회장에 金昌洙동문

뉴욕지부동창회(회장 金榮萬)는 최근 총회를 개최하고 제 34대 회장에 金昌洙(약학64-68)동문을 선출했다.

공인회계사로 활동 중인 신임 金회장은 1971년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73년 도미해 1977년 뉴욕대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동창회 수석부회장에 朴尙元(국약69-73)동문, 부회장에 尹炳夏(잠사80-87)동문, 이사장에 郭先燮(섬유공학61-69)동문, 부이사장에 琴榮川(약학72-76)동문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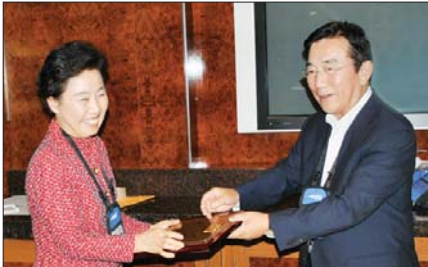
또 감사에 韓京秀(정치57-61)·金文卿(약학61-65)동문, 사무총장에 李源宰(경제79-83)동문, 총무국장 겸 IT위원장에 金元泳(응용미술81-88)동문을 선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이 金殷宗회장(左)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이 宋舜英 前회장(左)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金殷宗회장이 具明順동문(左)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 시카고지부 金司直(상학59-65)前회장, 남가주지부 韓鍾喆(치의학62-68)前회장, 필라델피아지부 趙和衍(작곡64-68)前회장, 하와이지부 李尙協(경제82-86)前회장에 공로패를 증정했다.

상패 수여에 앞서 林光洙회장은 미주동창회에 격려금 3천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林光洙회장은 “미주동창회 설립

살이를 위해 애쓰시고 성심성의껏 이번 모임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미주동창회 金殷宗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공로패 수상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업적을 기려 동창회 발전의 귀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 후 막을 올린 환영음악회에서는 미주동창회 朴榮俊(금속공학82-86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기술연구센터)동문이 준비한 공연을 통해 만찬의 흥을 더욱 북돋아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崔鍾燦·吳仁煥동문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

한편 미주동창회는 알래스카 크루즈 평의회와 기간 동안 姜洙祥(의학47-53 미주동창회 고문)·吳仁煥(전문기상63-67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崔鍾燦(무역68-72 前건설교통부 장관·모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동문 등의 강연회를 열었다.

7월 10일에는 姜洙祥동문이 ‘노화와 항노화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이어서 吳寅煥차기 회장이 ‘Group IQ and Leadership’이란 제목으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姜洙祥동문은 “사람의 몸은 유전자의 지침에 따라 세포 분열로 분화된 후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며 성인이 된다”며 “이렇게 형성된 세포가 노화과정으로 들어가면 각 세포의 생리적 기능이 떨어

어지며 조직이나 장기가 원래 가진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일에는 그레이서 베이 선상투어에서 崔鍾燦동문이 ‘한국 경제의 과제와 향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실상과 앞으로의 경향을 전망했다.

崔동문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을 설명하며 “한국 경제의 과제는 고용부진과 청년실업, 세계적으로 동일한 양극화 현상, 가계부채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이 있다”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복지 지출과 인적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국민 의식 개혁을 대응 방향으로 제시해서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번 평의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金好元동문은 ‘건강상식 이모저모’ 발표를 통해 치매 예방법과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음식습관·요리법을 강연했다.

金好元동문은 “치매를 예방하는 들깨잎에는 뇌세포 학습능력과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많은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전자레인지로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익혀 먹으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면역시스템을 파괴함으로써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번 평의회는 크루즈 여행과 다양한 관광을 통해 미주동창회와 본회 회장단이 서로의 친목을 다졌으며, 공식 일정 이후에도 각 지부 모임으로 행사를 갖고 모교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제21차 미주동창회 평의회를 마무리했다. (榮)

〈3면에 이어〉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미주동창회의 재정현황과 ‘브레인 네트워크’ 조직의 다양한 분야 수립,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통일 문제, 동창회장 추천위원 선출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평의원 환영 만찬서

격려금 3천달러 전달

평의회가 끝난 뒤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평의원 및 본회 방문단 환영 만찬이 거행됐다.

金殷宗회장은 환영사에서 “알래스카 크루즈의 여행 지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지역으로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일정을 자랑

한다”며 “이제부터 신선한 공기와 대자연 속에서 그야말로 한 배를 탄 한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여행지에서 발견하게 될 역사적 배경이 본국에서 오신 임원단과 여기에 모인 우리들 삶에 좋은 경험”이라며 “일시적인 현상만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총체적인 상황과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미주동창회 宋舜英 前회장·徐重民(기계공학64-72)회적위원장, 하트랜드지부 金好元(치의학52-56)고문, 필라델피아지부 高炳淵(물리55-59)평의원, 샌디에이고지부 朴友善(화학공학57-61)前회장, 뉴욕지부 金榮萬(경제59-65)前회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수십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취율을 자랑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픈라자 7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7월 4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203호 세미나실 및 상록인 명예의 전당 전시실에서 5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을 거행했다.

올해 헌정 대상자는 지난 2월까지 6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3월 포상위원회 연석회의 및 4월 상임부회장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

다. 한우 개량 기술을 과학화·현대화해 오늘날 한우 개량의 기틀을 마련한 薛東攝(축산53-57 前 한국중축개량협회장)동문, 육잡 및 잠상보호 분야를 연구해 우리나라 잠사업의 황금시기를 이끈故 林鍾聲(잠사57-62 前경북대 명예교수)동문, 무궁화 연구 및 선양사업에 공헌하며 조경학 및 원예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沈慶久(농학59-63 성균관대 명예교수)동문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 앞서 상임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鄭潤煥회장, 모교 농생대 李鶴來(임산가공75-79)학장, 동창회 尹勤煥(농학50-54)고문이 차례로 축사를 전했으며 상록인 명예의 전

당 위원회 李銀鍾(농생물59-63)위원장이 헌정자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진 헌정식에서 헌정자와 가족이 소감을 발표했으며 자리에

참석한 모든 동문이 상록인 명예의 전당 전시실을 관람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울 신림동 ‘금비’에서 薛東攝동문의 잔조로 만찬을 가졌다.



여수엑스포 문화탐방 다녀와

사대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7월 17~18일 양일간 5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여수 일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동문들은 첫날 여수엑스포 행사장 일대를 돌아보며 한국관, 국제관, 아쿠아리움, ‘Big O Show’ 등을 관람했다. 이틀째 일정에서 순천만 갯벌과 자연생태공원을 탐방하고 우리나라 3대 명찰 중 하나인 송광사 문화유적을 방문해 마음의 안식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오후 서울로 돌아온 동문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덕분에 상호간 우의를 증진하고 모교 사대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또 卞柱仙회장과 문화탐방 행사 단장을 맡은 모교 체육교육과 鄭淸喜(체육교육62-66) 명예교수, 실무책임자를 맡은 단국대 鄭燦謨(체육교육66-70)교수, 방산중 崔貴男(체육교육66-73)前교장 등 동창회 임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사대 여성동문회

任公姬회장 선출

사범대학 여성동문회(회장 柳吉子)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동창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 모교 사범대 全相學(생물교육79-83)교무부학장이 모교의 변화와 발전상을 소개했다. 이어 모교 교육학과 文龍鱗(교육67-71 前교육부 장관)교수가 ‘이제는 행복교육입니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동문들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60분 동안의 강의를 경청했다.

2부 총회에서 동창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격려사와 축사에 이어 지난 8기 동창회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이 흘러나와 참석한 동문들의 감회를 새롭게 했다. 또 임원 개선을 통해 제9기 회장에 任公姬(가정64-68 前경기여교 교장)동문, 감사에 金玉玉(사회교육59-63 前개운중 교장)金屋子(수학교육71-75 국일관 이사)동문을 선임했다.

이날 동창회 金榮義(사회교육49-53 한국수필문학작협회 이사)초대회장이 수건을 협찬했으며, 宋壽男(체육교육54-58 순천향대 석좌교수)동문이 점심 비용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석한 제1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난설헌’의 작가 崔文僖(본명 崔慶林 지리교육54-58)동문의 사인회가 즉석에서 펼쳐져 동문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崔 愷 仁 作



한 덩어리의 무게감 (The weight of a mass), 캔버스에 과슈, 아크릴, 90×90cm, 2008

<작가약력>

▲1990~1994 모교 동양화와 졸업
▲1995~1997 모교 대학원 졸업
▲2012 ‘닭음과 닭지 없음의 사이’ 호암교수회관 초대전

▲2008 ‘군집 공간’ 문예진흥기금 후원전시
▲2006 ‘식물 기행’展 (학교재 화랑)
▲2001 ‘감자 속 사막 (모인 화랑)
▲1996 ‘인데코 갤러리·공평 아트센터 초대전 (서울)
▲現강원대·한성대 강사

경기북부지역동창회 첫 출발

치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秉燦)는 지난 7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육교식당’에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의 지역을 망라하는 경기북부지역 동창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金秉燦회장, 安聲勳(치의학75-81)·韓星熙(치의학79-85)부회장, 모교 치대원 崔珣哲(치의학73-79)원장 등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金秉燦회장은 취임 후 1년6개월 동안의 활동을 소개하며 동창회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 崔珣哲원장은 모교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을 설명하며 치대 개교 90주년을 맞이해 10월 6일~7일 양일간 대대적으로 거행될 국제심포지엄 및 홈커밍데이 행사에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金秉燦회장이 의정부지부 諸葛宣榮(치의학64-71)회장을 경기북부지역동창회장으로 임명하는 위촉장을 전달했다. 동창회는 연 2회 정기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속동창회

權五俊회장 취임

금속동창회(회장 姜昌五)는 최근 서울 서초동 증식당 타워차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포스코 權五俊(금속공학68-72)사장을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서 姜昌五회장의 개회사, 회무 보고, 모교현황 보고에 이어 시상식을 가졌다. 2012년 재료공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鄭津旭(재료08-12)동문이 금속동창회장상을, 曁同和(금속공학69-73)동문이 자랑스러운 금속동문상을 수상했다. 曁同和동문은 KIST 원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며 과학기술 정책과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진 이사회에서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결했다. 또한 임원 개선을 통해 鄭寅造(금속공학71-75)·金永韻(금속공학79-83)동문을 감사로 선임했다.

임학동문회

동문초청 강연회 열어

임학동문회(회장 徐承鎭)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산림과학부 7218호 강의실에서 40여 명의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동문회가 실시한 이번 강연회에서 산림청 金滿均(임학78-82)차장이 ‘숲에서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세요-선배가 걸어간 길, 임학도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재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등 진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강연했다. 또 徐承鎭(임학72-79 前산림청장)회장과 鄭乙秀(임학81-88 CIMAC 대표)총무이사도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강연회에 모인 재학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강연을 경청했으며 선배들의 조언에 높은 만족감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載)

본디 타고난 건강체질이긴 하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1959년부터 근래 까지 골프를 꾸준히 치며 건강을 관리해 왔다.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30분 동안 맨손체조를 하고 틈나는 대로 걸어 다니는 것으로 기력과 근력



金 洪 錫

로 활용하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음식은 특별히 가리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며, 양질의 단백질 섭취에 관심을 갖고 생선류를 즐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만큼 항상 타인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만한 대인관

●원만한 대인관계 건강에 도움

을 유지한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거주시 주변의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계는 안전한 생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에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정치45-49)前한국투자신탁 사장



집이 북한산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어 매일 30분 아침산책이 제일 중요한 일과가 됐다. ‘노화는 다리로부터 오며 더 이상 걷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10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993년 한국마사회에서 개인마주제가 신설됐을



李 秀 洪

주를 해 상금을 얻는 사업이다. 과정이 복잡해 머리를 많이 쓰는 한편 동물과 교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령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는 ‘웃음과 행복감’, ‘사랑과 배려’ 등 심력을 주장하는 미국 알

●매일 30분씩 10년간 산책

때 2두의 말을 배정받은 것이 계기가 돼 20년간 서울마주협회 회원으로 있다. 1~2세 되는 말을 사 목장에서 먹여 키우고 조교사의 조언을 거쳐 경

버트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신야 히로미 교수의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을 관심있게 읽었다. (정치49-59) 한국문화협회 회장

관악극회 창단 공연 제작발표회

연극동문회

연극동문회(회장 李順載)는 지난 7월 21일 서울 충정로3가 삼창빌딩 8층 연극동문회 공연연습실에서 부설극단인 ‘관악극회’ 창단 공연 ‘하얀 중립국’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李順載(철학54-58)회장은 인사말에서 “시작 단계인 만큼 크게 욕심내지 않고 진솔하게 열심히 한 모습만 보여드릴 것”이라며 “남녀노소가 한 마음으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49년만에 연극무대로 복귀하는 신영예술문화재단 申榮均(치의학48-55) 이사장은 “살아가면서 늘 ‘내 인생의 뿌리는 연극이고 연극무대’라고 생각해 왔다”며 “관악극회에서 우리나라 연극문화의 발전을 이끌 좋은 배우와 연출가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빈으로 초대된 서울 柳鍾秘(철학78-85)관악구청장은 “관악구가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관악극회와 연결돼 기쁘다”며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



했다.

하얀 중립국은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막을 펼친다. 20세기 문학 거장 중 한 명인 막스 프리쉬의 원작 ‘안도라’를 각색해 인간집단의 광기를 냉소적이며 비판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李順載회장, 申榮均이사장을

비롯해 배우인 沈洋弘(국문64-71) 동문 등 전문 연기자부터 올해 입학한 재학생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연극인들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제작발표회에 이어 공연의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진행했다. 사회의 안녕과 모든 공연 관계자의 건강을 바라며 축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문의 : 070-7788-5331 / 홍보간사 金璽子 010-7712-2268)

자원공학과동창회

임원회의서 회무 논의

자원공학과동창회(회장 石東均)는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동 세종원에서 2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石東均(자원공학74-78)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및 이사 등 임원진은 하반기 동창회 운영 방안 및 주요 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동창회는 오는 9월 원로 임원과 모교 교수를 초청해 모임을 갖고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학과동창회

동문의 날 체육대회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李珪載)는 지난 6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학군단 운동장에서 33회 동기회(회장 韓鍾律) 주관으로 제26회 동문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李珪載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체육대회에서 동문들은 훌수기와 짝수기로 나눠 축구, 소프트볼, 족구 등의 구기종목과 바

둑, 장기 등의 두뇌스포츠 종목을 통해 실력을 겨루며 우정을 나눴다. 대회가 끝난 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시상 및 만찬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MVP는 축구 尹鉉基(건축91-95)동문, 소프트볼 金賢俊(건축90-94)동문, 족구 李俊昊(건축90-94)동문이 차지했다. 또 장기 1위 元鍾煥(건축52-56)동문, 2위 李光載(건축71-78)동문, 바둑 1위 李春鎬(건축67-74)동문, 2위 鄭求忠(건축68-72)동문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載)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여섯번째 이야기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 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DOOSAN

신임 회장에 李信愛동문 추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

의과대학 함춘여자의사회(회장 金喜珠)는 최근 모교 연건캠퍼스 의생명연구원 11층 강당에서 제 40차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역대 회장인 朴嬭實(의학54-60)·張靑淳(의학54-60)·金明子(의학59-65)·朴誠淑(의학65-71)·朴貴媛(의학66-72)·朴明姬(의학67-73)동문 등 원로 임원을 비롯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 가운데 모교 졸업 후 모교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신입회원 16명이 포함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더했다.

모교 의대 崔敏鎬(의학83-89) 학생부학과장 金聖媛(의학85-91)연구부학과장이 모교 현황을 소개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尹汝奎(의학75졸)원장이 '갑상선 치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최신 정보와 임상 동향을 전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李信愛(의학73-79) 국립경찰병원 산부인과 과장 동문이 새 회장에 취임했다. 또 젊은 회원들에게 회무 참여의 폭을 넓혀 주고 전체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12명이었던 집행부 임원을 25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밖에 홈페이지 개설, 회원 수첩·뉴스레터 발간, 연례 학술대회 개최 등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모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에게 각각 1백50만원씩 4백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올해 모교를 졸업한 신입회원 47명 전원에게 USB(32GB)를 선물했다. 신입 회원 축하연에서 의대동창회 李吉女(의학51-57)가전대 총장 명예회장이 지난 3월 뉴스위크誌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선정된 소식과 배경을 설명하며 후배들의 긍지를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영문과동창회

故신광현 교수 추모식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柳津)는 지난 7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신양인문학술정보관 309호에서 故 申光鉉(영문80-84)교수 1주기 추모식을 엄수했다.

故 申교수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모교 李誠元(영문67-71)교수, 邊昌九(영문70-74)교육부총장, 인문대 裴永洙(서양사학72-76)학장, 동기인 이화여대 朴贊吉(영문80-84)·연세대 尹惠浚(대학원84-86)교수를 비롯한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추모강연에서 朴贊吉·尹惠浚교수가 '엘레지에 관하여', '글, 빛, 몽테뉴: 광현에게'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2부 추모사에서

邊昌九부총장은 "고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교와 제자들을 사랑했다"며 "교수라는 말보다 스승, 선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故 申교수는 생전 모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며 영문학 연구와 교육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지난 2009년 모교 교육상, 작고 후 우호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 후 경기도 성남시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載>

가장 맛있는 집

어느 골목에 음식점 3곳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3곳 모두 손님을 모으기 위해 저마다 간판을 달았다.
첫 번째 가게는 '국내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하자, 두 번째 가게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달았다.
그러나 손님은 세 번째 가게에 몰렸다. 세 번째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집'.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자 셋이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 여자와 두 번째 여자는 각각 "남편은 우리집 대장이에요. 한 톨이라도 남편이 허락해야 쓸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왕처럼 모셔요. 집안의 모든 돈은 남편을 위해 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세 번째 여자가 자랑스레 말했다.
"저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셔요. 수입의 90%는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10%는 남편을 위해 씁니다." <독자제보 환영>

2012 Korea Top Award
고객행복브랜드 大賞
결혼정보분야 1위

결혼은 1등으로 행복출발 하세요

결혼정보회사 **행복출발**
전국무료상담 **1588-3883**
www.theone.co.kr

15년 성혼의 달인들과
세계최고의 MBA출신들이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前 아나운서 최송현

행복출발 The1
결혼, 행복한 1등 출발 - 결혼정보

01 국내최초 전문 특화 결혼정보
02 세계 최고 MBA (와튼 스쿨) 출신들
03 15년 노하우 성혼의 달인들
04 독보적인 글로벌 검증 시스템
05 완벽한 고객 최우선 서비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IP동창회 姜普英회장
(안동의료재단 이사장)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AIP)동창회는 지난 6월 19일 안동의료재단 姜普英 (33기)이사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2014년까지 2년의 임기 동안 동창회를 이끌 姜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창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재능기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창회장에 선임된 소감은.

“부족함이 많은 제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문들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문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 하나로 화합하는 자리를 많이 마

초청 세미나와 추계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동창회에서의 추억이 있다면.

“안동에서 모교까지 통학하며 거리가 멀다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제일선에 서 있는 리더들과 함께 공부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나눈 하루하루가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수의 여러 동

“동문 역량 모아 재능기부 모색”

련해 즐겁고 유익한 동창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기술, 경영, 조직 혁신의 3대 주제를 기반으로 1989년 설립된 AIP는 지금까지 2천4백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동창회는 매년 세 차례 교내·외 유명 인사를 초청해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년교례회, 춘·추계 골프대회, 송년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점 추진 사업은.

“동창회 내에 조직된 봉사, 독서, 테니스클럽 등 다양한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또 동문 동정과 모교 소식이 담긴 이메일 뉴스레터를 더 많이, 자주 발송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19일과 24일에는 지식경제부 洪錫禹(무역74-80)장관

문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 동창회의 사회공헌 활동 계획은.

“안동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을 경영이념으로 세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능력을 살린 재능기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姜회장은 모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HPM 1기), 최고경영자과정 (AMP 48기)을 수료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HPM동창회 제5대 회장을 지냈다. 한국의료재단 연합회장,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대통령 표창, 재정경제부장관상, KAIST최고경영자 대상 등을 수상했다. (載)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HPM동창회 朴浩永회장
(한국위너스약품 대표)

정책단체로 그동안 주요 역할을 선도해 왔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회장에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활동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동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한 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문수첩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 친목모임인 골프동호회와 산악회 등을 적극 지원해 활성화하는 등 동창회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결속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 임원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임원 중 일부와 새 집행부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고

“동문수첩 제작·친목모임 활성화”

— 회장을 맡으신 소감은.

“그동안 회장직은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신 명망 있는 분들이 맡아 동창회는 물론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을 잘 이끌어 왔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막중한 책임을 져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기 동안 동문들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머슴이 돼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동창회 소개를.

“HPM동창회는 보건의료계의 전문직 종사자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심이 많은 분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재 28기 1천명 이상의 동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은 HPM동문들이 주축이 돼 한국보건산업 정책을 입안하는

자 하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만큼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산은 물이 있어 푸르고 물은 산이 있어 흐른다’는 말이 있듯이 더불어 함께하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7년 한국위너스약품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朴회장은 현재 (사)한국도협중앙회 언론홍보위원장, 연세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 연세대 MBA 총동문회 부회장, 재경 장유중 총동문회장, (사)아립장학재단 이사, 민주평통 대통령자문위원 고양시협의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香)



저렴, 신선한
사랑하실래요?

“오늘도 서울우유는 신선한 사랑 중”
갓 짜낸 우유의 신선함을
고객에게 더 빨리 전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서울우유의 신선한 사랑입니다
콜드체인시스템, 밀크마스터 제도
1급A원유, 제조일자 표기까지
고객을 향한 서울우유의 신선한 사랑은 계속됩니다

갓 짜낸 신선함을 원한다면
서울우유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서울우유 주문신청 및 고객센터 : 080-021-5656(수신자 부담)

서울우유
www.seoulmilk.co.kr

서울우유
송중기CF의
비하인드스토리를
확인하세요



Love U



Touch U



Thank U



Kiss U

당신을 사랑하니까 CU가 시작합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눈높이에 진열대를 맞추고, 시야를 탁트하게 했습니다
당신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통로를 넓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감동을 드리는 포인트 혜택까지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새로운 생활문화공간 CU로 새로워집니다


www.bgfcu.com

가맹점 문의 1577-3663

극단관악극회 창단공연

가학성향에 관한 인류 보고서

하얀중립국



2012. 08.23 목~09.01 토
월~목 8시 / 금~토 4시·8시 / 일 4시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대학로)

예매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티켓 대학로티켓닷컴
공연문의 070 7788 5331

제작 **서울대학교 연극동문회**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구청

원작 막스 프리쉬 'Andorra'

번역 김혜영

각색 최종률 신영선

연출 최종률

제작총괄 윤완석 제작책임 이태식 김은상 조인경

기획총괄 박병회 무대감독 문원섭

무대 윤정섭 조명 박원근 의상 조우현

분장 조성환 화술 김선애 음악 권병준

출연 신영균 이순재 심양홍 박원근 이수현 태 영

문혜인 김인수 박혜성 윤금서 신영선 박찬빈

나호숙 박경일 김동범 류근욱 김일호 박현섭

김현태 김종우 김창근 설경수 심 온 김도원

창단공연 “하얀중립국” 을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천대학교 · 대봉기연 · 동부건설 · 미래에셋생명 · (주)삼천리자전거

SK해운 · (주)퍼시스 · 한화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 · 건설협회 서울시지회

화제의 동문

아태암예방기구 柳 槿 永사무총장

2012년 현재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매년 17만명에 달하는 암환자가 생겨나고 남자는 평균수명 77세를 기준으로 3명 중 1명꼴인 37.2%, 여자는 83세 기준 10명 중 3명꼴인 30.5% 정도가 암 발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

한때 암은 원인도 모르게 불쑥 찾아오는 불치병 또는 사망선고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암 역학 및 예방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POCP) 柳槿永(의학72-78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사무총장은 “암은 원인을 인지해 예방할 수 있고 완치도 가능한 질환 중 하나일 뿐”이라며 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암 조기검진 사업에 역량 집중

柳동문은 지난 4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6회 APOCP 연차 총회에서 3회 연속으로 사무총장에 연임됐다. 아시아 각국의 암 예방 관리 정책과 전략을 지원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柳동문을 만나 암 정복에 대한 그의 자신감을 들어봤다.

APOCP는 지난 2000년 일본의 암 역



암 예방의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
“아시아 각국 예방정책 마련에 앞장”

학자 30여 명이 아시아권 암 예방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직한 단체이다. 柳동문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암 진단 및 치료에 비해 예방에 대한 투자를 등한 시한 채로 21세기를 맞이하는 바람에 암에 대한 전 세계적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0년 사이 아시아 각국에서 암이 사망원인 1위로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아시아 전역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전 인류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료와 진단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창립 이후 각국의 적극적인 공조에 힘입어 APOCP는 참여국들의 암 관리 사업을 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특히 1996년 제1차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 암 조기검진 사업 분야에서 세계 톱클래스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는 아시아 각국에 암 조기진단 및 치료 노하우를 전파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한국의 암 조기검진 사업은 일본보다

차 예방사업을 다른 국가들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柳동문은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더욱 활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의 암 관리 및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의 지원 체계나 기부 문화는 아주 미흡해요. 국제암협력기금, 모교에서 운용하는 암예방연구기금 등에 정부와 사회, 동문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0대부터 암예방 위해 노력해야

柳동문은 “우리나라의 암 진단 및 치료 수준이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지만 국민들의 암 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 낮다”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암 발병 연령이 젊어지고 있는 만큼 30대부터 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낸 세계적인 암 예방 학자로서 동문들을 위한 암 예방 수칙을 잊지 않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국민 누구든 암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둔 국가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하더라도, 건강할 때 미리 발견해야 합니다. 또 암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연, 주5회 매30분 이상 운동, 채소와 과일 다량 섭취를 생활화하세요. 암은 예방하되 결코 두려워할 병이 아닙니다.” (載)

모교 張 素 媛평생교육원장

2010년 모교의 교육 사회환원 사업 철학을 담고 개원한 평생교육원이 지난 4월 1일 새로운 책임자를 맞이했다. 국어국문학과 張素媛(국문80-84)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梁豪煥(역사교육76-80)초대 원장의 뒤를 이은 張素媛원장은 평생교육원 온라인 지식나눔(SNUi)서비스 프로그램 설립추진 부단장과 원격교육부장을 역임했던 만큼 누구보다 교육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책임자라는 평가다.

張원장은 “평생교육원이 ‘서울대학교가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張원장은 평생교육원의 역할에 대해 한 마디로 ‘지식나눔 서비스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모교 교수의 뛰어난 강의 공개

즉, 서울대 구성원만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에서부터 한국 및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까지 모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를 서비스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라는 것이다.

그는 “교양교육과 전문기술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오프라인 강좌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이를 온라인화해 연회원제로



고 있다. 우선 40개 학과 소개자료 제작을 끝낸 후 기타 모교의 모든 전공학과를 다큐멘터리로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소외계층 지원…멘토링 실시

해외에서는 단연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는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격증 과정으로 1년에 총 3기로 운영되고 있는 이 강좌는 매기마다 4백명 이상이 참여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기업과 MOU 통해 지식나눔 앞장

운영되는 SNUi 사이트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특히 “모든 강의에 전·현직 모교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하버드대와 MIT처럼 모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밝혔다.

개원한 지 3년째를 맞이한 평생교육원은 최근 일반강좌 외 맞춤형 정보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입학관리처와 협의해 각 전공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7일 모교 문화관 대강당에서는 吳然天총장과 張永喆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을 비롯한 전국 소외계층 5백명과 멘토 1백여 명 등 총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캠코 청소년 지식나눔’ 발대식이 열렸다.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모교 교수의 패스파인더(각 전공 교수들의 전공 소개 등 강의 프로그램) 및 인문, 경제, 과학 등의 기본 소양을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우수 대학생 및 캠코 직원들의 멘토링, 캠코의 신용교

화제의 동문

육,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張원장은 “소외계층 대상의 지식나눔 사업을 위해 캠프 측에 제안했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온라인 강의만 제공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해 1년 동안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1년 동안의 수강이 끝난 후에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강의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원의 가장 큰 목적인 사회공헌 사업 실행은 학교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캠코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기업들과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나눔의 시대에 모교가 앞장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나눔에 있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張원장은 전공을 살려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등 다수의 책을 공동 집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임 개발에 힘쓰고 있다. (香)



■ 제1기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개강식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참석 의견 개진



■ 2011년 LAWASIA 서울총회



■ 일제피해자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는 실천으로 말합니다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號 순항

전관예우 근절 / 검찰 중립성 / 대법관 증원 / 판결문 공개
국가 법률 관련 기관 내 법률연구관(Law Clerk) 도입
대한민국 최고법률가단체로서의 사법개혁 의지 실천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호사를 위한 법률보험제도 추진 /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강화 / 국민에게 징계 내역 공개 추진 /
상장회사 내 변호사인 준법지원인 확대 추진 / 법치주의 실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옹호 /
경제적 약자 위한 법률구조 확대 /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개설 /
일제피해자문제 해결 촉구 / 북한인권백서 발간

서울에 동북아 중심 국제중재센터 유치 추진
2011년 LAWASIA 서울총회 개최 (2011.10.9.~10.12.)
중소 로펌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KOTRA와 MOU 체결)

바르고,
강하고,
따뜻한 대한변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CALLA JEWELRY

Calla jewelry decoration is made
of genuine swarovski crystal



서울대 종교우회 회원님을 위한 혜택!

불황을 극복하는 최고의 향기마케팅! 실내 향기관리 전문기업의 컨설팅!

- ① 평당 하루 향기관리비 20원.
- ② 전문향기코디네이터 정기 방문서비스.
- ③ 기업이미지, 브랜드에 알맞은 C향기개발.
- ④ 국내최초 굿디자인마크 획득!
- ⑤ 평생 무상A/S.



대한민국 디자인품질인증
굿디자인마크 획득!

① 베이직



② 프리미엄



③ 럭셔리



고객문의

고객센터 상담전화 032)623-7200
www.aroma365.co.kr

향기상품권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고품격 럭셔리
향기상품권 출시!

“새로운 인재 선발 방식·입시제도 구상중”

동문을 찾아서

모교 邊昌九 교육부총장

모교 吳然天총장은 지난 7월 취임 2주년을 맞아 보직교수 인사를 단행하고 교육부총장에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邊昌九(영문70-74)교수를 임명했다.

邊부총장은 인문대 학장 시절 국내에 처음으로 아시아언어 문명학부를 신설하는 등 소통하는 인문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邊부총장에게 모교와 동창회의 관계를 묻자 “서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대답 : 李相起(아시아N 대표·발행인)논설위원



— 최근 부총장님이 전공하신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개막식이 멋지더군요.

“저도 개막식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보았습니다. 그 중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인 ‘템페스트(Tempest)’를 테마로 연출한 장면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템페스트’는 환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화합을 상징합니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들이 과거의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용서하며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희망의 개념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작품의 무대 배경은 영국이 아니에요. 비영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역시 문화대국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인문학적 사고를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과연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교육부총장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신다면.

“교육부총장이 담당하는 분야는 교무행정과 학생, 입학, 국제협력 관련 업무입니다. 물론 교무에서 교수 임용관리도 있지만 학생들의 입학과 학교생활, 또 재학생들이 좋은 수업을 듣고 우수한 인재로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의 주요한 업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제자이자 후배인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싶어요.”

— 혹시 입시제도가 바뀌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나요.

“입시의 화두는 항상 입학시험의 단순화입니다. 단순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고가고 있고 이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그 중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학부모의 정보력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입시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위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모교는 법인화법의 통증과 후유증, 많은



• 邊교육부총장은

1951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경남고를 졸업했으며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88년 미국 털사대에서 영어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모교에 부임 후 모교 미술관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인문대 학장, 한국셰익스피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 23일 모교 교육부총장에 임명됐다.

邊부총장은 인문학자로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모교 내에서 주요 보직을 통해 행정업무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취미로 경기도 양평의 주말농장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으며 대학교수인 부인과 사이에 모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하나 있다.

“대학 교육은 홍보보다 내실이 중요” 미술관장·교무처장·인문대 학장 지내

논란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된 이후의 서울대의 큰 틀을 그려보자는 邊총장님의 명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서울대의 모습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하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학사구조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총장님께서 그런 서울대에 어울리는 인재는 어떤 요건을 가진 친구들이겠냐며 인재 선발 방식과 입시제도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또 법인화 이후 교수제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벨상 수상자도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교의 교수제도라는 것이 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이어지는 하나의 트랙으로 일관돼 있었는데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학내외의 구성원과 논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곧 공식화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이때 동창회측 관계자도 위원회에 모실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의견을 도출해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대학의 아카데미즘 영역이 줄고 교수

들의 교육과 연구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인화 이후 많은 분들이 자율성과 자유라는 말에 매료돼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인화가 돼도 서울대는 나라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이고 우리나라 대표 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선에서 正道를 지키며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라와 지식체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모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너무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나 수요에 따라다니는 대학이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이 서울대가 법인화 초기에 지켜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흔히 말하는 서울대 폐지론 혹은 변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서울대 폐지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회는 경쟁 사회여서 1등과 2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서

울대가 없으면 다른 대학이 1등이 되겠죠. 그럼 그 대학을 또 없애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건지요? 특히 정과 간의 이런 공약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양식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서울대를 물리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거에 서울대가 지녔던 부정적인 부분, 즉 독점과 독식을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의식과 제도를 개선하면 건전해집니다. 사회가 건전해지려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변화를 모색해야겠죠.

과거 우리 사회가 워낙 좁고 작아서 대학도 몇 개 없었죠. 그러니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독식하게 됐죠. 고시만 해도 합격자 8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런 과거에 대한 폐해를 현재에서 찾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고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서울대 점유율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점점 서울대 폐지론의 근거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과거의 부작용을 가지고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게 옳은지...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40대 이하의 세대는 서울대가 독점하는 분야가 거의 없어요. 이미 그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웃음)”

— 安哲秀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철수 클리닝’ 이런 부분이 서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부분은 安哲秀교수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의 선택을 우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고 그 선택 또한 서울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 安교수 이미지가 서울대가 그동안 지녔던 일부 부정적인 것과 다른 점에서 서울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은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늘 아침에 헌관문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 오늘도 정말 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 ‘정말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보직을 많이 경험한 편이지만 부총장 자리가 이렇게 바쁜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회의가 계속됩니다. 하루에도 한 시간 단위로 회의가 6개 이상 진행되니 중간에 졸지 않으려고 노력할 정도로 바쁩니다. 오늘도 오후에 회의 세 건이 연속으로 붙어 있어요. ‘잘 버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출근하죠.”

— 10년 뒤 부총장님 모습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지만 제가 바라는 10년 뒤 모습은 아마도 시골에서 채소를 가꾸며 왔다갔다하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책도 읽고 따뜻한 햇볕 아래 앉아서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꿈꿔 봅니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죠. (웃음)”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邊榮顯기자)

“인프라 구축 등 연구역량 강화에 힘써”

동문을 찾아서

모교 李俊植 연구부총장

지난 7월 26일 李俊植(기계공학72-76)연구처장이 연구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법인화로 새롭게 출발하며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모교 정책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 시작과 동시에 창의선도 연구자 지원정책 등 굵직한 사안을 처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李부총장은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연구분야가 대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답 : 金永燮(연합뉴스 PR기획서비스팀장)논설위원



— 우선 모교 연구부총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연구처장에 계신 지 7개월 만에 부총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총장 임기가 4년인데 반해 부총장, 처장, 국장 임기가 보통 2년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총장 임기내 2기 보직자들이 출발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기 보직자들이 법인화로써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2기 보직자들의 임무는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서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저 또한 吳然天총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창의선도 연구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법인화 이후 핵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요.

“국고 예산 2백35억원이 투입된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육성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창의선도 연구자 선정은 미래에 모교에서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촉발시키고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취지라 할 수 있지요. 올해는 25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차세대 유망교수부터 연구업적이 탁월한 중견교수까지 총 8명을 선정했습니다.”

— 법인화 관련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또한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현재는 정관, 학칙 또한 그와 관련 제반 규정들이 모두 정립·공포된 상태로 법인화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대학 체제하에서 시스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던 급여 및 교수임용에 있어 유연성이 생김으로써 해외의 훌륭한 석학들을 모교 전임교수로 초빙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대학 제정과 관련해서도 과거 수익사업의 경우, 별도의 법인을 만들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창출된 수익은 국고로 들어간 후 다시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이제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됨으로써 다양한 교육연구에 투입해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 李연구부총장은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하고 모교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모교에 부임 후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장, 기계항공공학부장, 연구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 26일 연구부총장에 임명됐다.

ASME Journal of Heat Transfer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저명학술지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국가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로 연구정책수립 및 예산배분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모교 연구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교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등 역임 “국립대 통합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

기대됩니다.”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큰 것과 동시에 법인화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인화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등록금 인상인데 오히려 올해 5%가 인하됐으며, 대내외적인 장학금제도를 통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학문 분야가 고사되지 않을 까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립, 기반학문진흥육성사업으로 5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원 생활 동안 등록금은 물론 논문연구비에서 기초생활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육성을 강화했습니다.”

— 연구처장직에 있으면서 진행했던 사업 중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처장을 맡으면서 ‘미래연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보통의 대학내 위원회가 자문단 성격이 강한 반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위원회 성격이 강

합니다. 앞으로 미래연구위원회를 통해 기술수요 예측이라든지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연구 및 기술에 대해 도출해 내는 등 모교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학교 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과 학기술회 등의 R&D와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결 통로는 마련돼 있지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와는 고위직 공무원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거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미래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R&D 관련 각 부처에서 국과위에 예산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각 R&D 부처에서의 사업 기획과정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자 합니다.”

— 기존의 사업 외 임기 중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자체의 연구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예산이 각 단과대, 학부, 교수순으로 순차적으로 배분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교수

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가 3~4천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 집중적으로 고가의 대형 공용장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해외 유명대학을 살펴봐도 특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면에서 부족합니다. 연구는 결국 장비싸움입니다. 얼마만큼 훌륭한 장비를 구축했느냐에 따라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현재 연구수행보다 행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소를 특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인문사회와 이공학부는 물론 예체능계가 함께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보다 차별화된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공약이 난무한 가운데 민주당의 ‘서울대 폐지론’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안인데 이것이 대선과 관련해 나왔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폐지론이 아닌 국립대학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는 세계적인 변화 추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미국의 UC(University of California)를 예로 들었지만 이는 대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UC는 버클리, LA, 샌디에이고 등 10개의 대학으로 구성됐지만 학생모집에서부터 학위과정 등 모든 부분에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대학별로 서열화가 존재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 운영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과거 명문대가 있었지만 1~13대학 체제로 바뀌면서 세계 랭킹 2백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전무한 상태가 되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다시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국립대 통합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울대 폐지론이 여야쟁점으로 부각되는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모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적인 학벌 서열화 등에 따른 폐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교에 대한 외부 시선을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모교 소속이 아닌 타고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것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육성 프로젝트 중 기초학문진흥육성에 포함된 사업인 ‘브레인 퓨전 프로그램’이 좋은 예입니다.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모교에서 처음으로 대학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대 교수가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교도 울타리만 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학벌 서열화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맞춰 학점교류 등의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林香默기자)



민족의 슬기와 긍지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
신풍제약주식회사
<http://www.shinpoong.co.kr>



• 2012 제13회 대한민국
신약개발대상 수상



• 2011 메디컬코리아
신약개발대상 수상



• 2005 MMV
프로젝트상 수상



믿음의 50년, 희망의 100년
 1962~2012

민족의 슬기와 긍지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50년을 한 길로 걸어온 Global care 신풍제약

글로벌 신약 차세대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정**(국산신약 16호) 개발성공,
 EMA(유럽약정국) 승인을 받은 연구중심의 **신풍제약**

인류 생명존중의 정신과 질병 퇴치라는 숭고한 인류애로 신풍제약은 WHO와 빌게이츠 투자재단인 MMV지원으로 세계적인 연구프로젝트인 항말라리아제 신약개발에 성공 함으로써, 2011년 8월 17일 한국식약청(KFDA)으로부터 국산신약 16호로 승인 받고 2012년 2월 17일 EMA(유럽약정국)로부터 신약 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원료의약품에서 완제의약품까지 50여종의 의약품을 자체기술개발로
 생산, 판매하는 **신풍제약**

70년대 국내외 만연되어 있던 기생충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한 구충제의 자체 원료합성 기술개발에 성공하며 해외수출은 물론 WHO나 UNICEF 및 민간구호단체 등과 함께 필수의를약품을 널리 공급하였습니다.
 그밖에 항생제, 항고혈압제, 항암제, 당뇨병치료제, 관절염치료제, 소염치료제 등 다수의 의약품을 원료에서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자체개발하여 인류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훈장
 목련장



한국 EU-GMP 공장



한국 KGMP 공장



오송 세파계 공장



중국 천진 신풍제약



베트남 신풍제약



수단 신풍제약



2천만불
 수출의 탑

쌍육기우회

雙六棋友會(회장 白勳尙)는 모교 상과대학 66학번 모임인 雙六會(회장 尹濟哲)의 소모임 중 하나로 1997년 3월에 정식으로 조직됐다. 초대 회장인 金英埴(경영66-70)동문에 이어 현재 白勳尙(무역66-71)동문이 회장직을 맡아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다.

中伏인 지난 7월 28일 서울 서초동 한 일기원에서 불별더위가 계속되던 중에도 더위를 잊은 채 자체 대회로 분주한 쌍육기우회 회원을 만나 보았다.

쌍육기우회는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대부분이 창립 멤버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2회 모임과 연간 세 차례 대회를 통해 바둑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쌍육기우회는 지난 7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열린 본회

되고 있다.

白勳尙회장은 “우리는 눈앞의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회원 모두가 바둑을 즐겁게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실력이 월등한 회원의 배려가 필요하데 다른 회원과의 수준에 맞추는 등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실력의 회원이 흥미를 갖도록 이끌고 있다. 특히 延健昊총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모임의 유지 비결을 밝혔다.

이번 7월 두 번째 정기모임에는 白勳尙(세인상사 대표)회장, 延健昊(영원무역홀딩스 감사)총무를 비롯해 姜明求(경제66-70)현대농업선물연구소 대표, 金己輝(상학66-70)소낙스 대표, 金萬燮(무역66-70)前서원양행 사장, 金英埴(경영66-70)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金興萬(무역66-70)前맥길산업 대표, 李灌雨(상학66-74)前동부화학 상무, 張基鎬(상학66-74)프론티어 솔루션 대표, 蔣鎮垣(상학66-70)前범양상선 사장, 全慶勳(상학66-73)前메텍스 대표,

공대 여성동문회

공과대학 여성동문회(회장 金用美)는 공학도인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유대관계를 위해 1953년 창립된 유서 깊은 동문 모임이다. 故 成貞子(화학공학53졸)초대 회장을 필두로 많은 여성 동문들이 한국전쟁과 산업화, 경제발전의 휘몰아치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공대 여성동문회 제15대 회장에 金用美(건축79-83 금성건축 대표)동문을 선출했으며 김회장을 도와 모교 컴퓨터공학부 田華淑(컴퓨터공학79-84)교수가 수석부회장, 서울시립대 白恩沃(컴퓨터공학81-85)교수·경기대 柳典希(건축82-86)교수·가천대 金志玟(화학공학84-88)교수가 부회장을 맡았다.

김회장은 “여성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 공대 모임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회원들이 매년 개최되는 다채

무)총무는 “화학생물공학부 졸업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축학과, 컴퓨터공학부 순”이라며 소개하고 “기업체에서 활동하는 동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음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후학의 양성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동문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모교 공대 여성동문들은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언론 및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회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선후배간의 유기적인 만남을 확보하고 서로 각기 다른 분야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6년 모교 공대 개교 60주년 행사와 더불어 공대 여성동문회도 1천번째 회원인 김유라(응용화학00-05)동문을 맞이하며 회원수 네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후 동문회는 회원 1천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SEW(SNU Engineering Women) 네트워크 펠로우십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펠로우십’은 재학생과 동문간의 네트워크를 장려할 목적으로 2006년 제정됐으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2명의 우수한 모교 공대 여성 재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있다.

상대 66학번 바둑 애호가 모임

승패를 떠나 40여 회원 화합 도모



지난 7월 28일 대국을 펼친 쌍육기우회 회원들. 좌로부터 네 번째가 白勳尙회장.

‘제9회 동문 바둑대회’에 참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을 냈다. 회원 다수가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가했는데 延健昊(상학66-70)총무가 속한 상과대학팀은 뛰어난 실력을 지닌 강적 문리대팀을 제치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白勳尙회장은 개인전 공동 3위를 차지해 모임의 위상을 높였다.

延健昊총무는 “우리 회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은 개개인이 치열하게 연습한 것은 물론 회원들의 승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모임은 동문 바둑대회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쌍육기우회는 정기모임 외에도 등산, 골프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회원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선행을 베풀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소모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회원들의 높은 참여율과 구성원 간의 화합이 중요한데 단 한 번의 갈등 없이 순조롭게 모임을 유지함으로써 타 모임에 언제나 좋은 본보기가

鄭光燮(상학66-74)에이씨엔피 대표 등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회원의 바둑 실력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바둑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모두가 한 마음이다. 이들은 입을 모아 바둑은 심신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인생의 지혜를 익힐 수 있는 활동이라 예찬했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바쁜 현대인이 이런 느낌의 미학을 한 번은 경험해 보길 권했다.

올해 들어 15년 역사를 갖게 된 쌍육기우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바둑을 통한 화합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白회장은 “우리 모임의 목표는 대회에서 수상하고 실력이 월등해지는 것이 아닌 동기들이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바둑을 즐기는 것”이라며 회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쌍육기우회는 그 어떤 모임보다도 끈끈한 우정과 의리로 뭉쳤으며 진정으로 인생을 음미하고 즐길 줄 아는 동문들의 모임이었다. 이들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즐겁게 바둑에 대한 열정을 이어나가길 기원한다. 〈沅〉

여성 공학도의 자기계발 도와

매년 총회에서 재학생에 장학금 수여



지난 4월 14일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로운 행사에 많이 참석해 반갑고 그리운 선후배를 만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뿌듯한 활약상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대 여성동문회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펼친 동문이 많다. 1953년 모교 공대 1호 여성 졸업생인 故 成貞子동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공학 여성 엔지니어로 대한석유공사(現 SK) 임원을 지냈다. 또 朴順子(화학공학50-54)동문은 모교 공과대학 최초의 여성 교수로 봉직했으며 정년퇴임 후 중국 엔지니어링 기술대에서 중국 동포와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도 제9대 회장을 역임한 金鎮愛(건축71-75 前국회의원·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위원장)동문은 1994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1세기 국제적 지도자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50년대에 39명에 불과했던 회원수는 산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까지도 적은 숫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이 강조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모교에 여학생이 꾸준히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공대 여성동문회의 회원수도 증가했다.

金孝貞(컴퓨터공학86-90 한국IBM 상

장학생들은 1년에 1회 시행되는 ‘홈커밍 데이’ 행사 준비 지원과 공대 여성동문회 홈페이지(<http://womeneng.mysnu.net>)를 관리하게 된다. 이 펠로우십 제도는 재학생 지원 및 동문회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동문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동문회는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선배들과의 만남을 제공하는 멘토링 사업과 사회적 귀감이 되는 동문들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해 재학생과 동문간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교류 활성화와 회원 DB 업데이트, 역대 장학생간 네트워크 지원, 기금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金用美회장은 “공대 여성동문회는 단순 친목 모임에 그치지 않고 이공계 여학생의 진로 설정과 자기계발을 돕는 발전적인 모임”이라며 “동문회 모임을 통해 후배들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 선후배간 아름다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공과대학과 사회 발전의 역사 속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공대 여성동문들 모두가 계속해서 모교 사랑과 나라 발전에 기여해 주길 기대해 본다. 〈榮〉



邊昌九교육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洪起玄교무처장



李在影학생처장



成老鉉연구처장



南益鉉기획처장



裴永洙인문대 학장

모교 부총장 3명 등 대폭 인사 단행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7월 23~26일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邊昌九(영문70-74)교수, 신설된 기획부총장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任廷基(의학68-75)교수, 연구부총장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李俊植(기계공학72-76)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邊昌九부총장은 1980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88년 미국 Tulsa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모교에 부임해 한국현대영미학회 부회장, 한국세익스피어학회 회장, 모교 기초교육원장·미술관장·교무처장·인문대 학장 등을 지냈다. 〈인터뷰 14면〉

신임 任廷基부총장은 모교 대학원에서 1978년 석사학위, 1983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의과대학 학장·연구부총장, 모교 병원 진료부원장, 서울중앙즐거이세포은행장, 흥부방사선 연구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신임 李俊植부총장은 1980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기계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모교

에 부임해 모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장·창업지원센터소장·신기술창업네트워크센터장·연구처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15면〉

이날 교무처장에 경제학부 洪起玄(경제76-80)교수, 학생처장에 영어영문학과 李在影(영문83-87)교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에 생명과학부 成老鉉(동물77-81)교수를 임명했으며 南益鉉(경영81-85)기획처장은 유임됐다.

교무부처장에는 치과교정학교실 白承學(치의학84-88)교수, 학생부처장에 건설환경공학부 金永梧(토목공학85-89)교수,

연구부처장 겸 산학협력단 부단장에 농경제사회과학부 鄭眞和(가정관리83졸)교수, 기획부처장에 법학부 鄭順燮(사법83-87)교수를 임명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인문대학 학장에 서양사학과 裴永洙(서양사학72-76)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裴永洙학장은 1978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에서 역사학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서양사학과장·대학신문 주간·역사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청소년 지식나눔’ 발대식 개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원장 張素媛 국문80-84)은 지난 7월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張永喆 경영76-80)와 공동으로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서울대·캠코 청소년 지식나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모교 재학생들과 함께 ‘서울대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5백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기존 캠퍼스 탐방 중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석했다. 이 탐방은 교육과 경험의 기회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모교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은 모교와 캠코가 소외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전공별 온라인 강의 수강 ▲캠퍼스 탐방 ▲멘토링 ▲희망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창의선도 연구자’ 8명 선정 우수 교수에 파격적 연구지원

모교는 지난 7월 26일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년 창의선도 연구자’ 8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학술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모교에서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는 교수에게 맞춤형으로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한다.

‘창의선도 연구자’로는 모교 의대 병리학교실 朴聖會(의학67-75)교수, 자연대 물리전문학부 任志淳(물리70-74)석좌교수, 약대 약학과 金奎源(제약72-76)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4억원이 지원된다.

또 40대 연구자들이 중심인 ‘창의선도 중견연구자’로는 약대 제약학과 金聖勳(제약77-81)교수,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玄澤煥(화학83-87)중견석좌교수, 자연대 생명과학부 金빛내리(미생물88-92)중견석좌교수·白盛喜(식품영양90-94)교수, 공대 전기공학부 權聖勳(전기공학94-98)교수 등 5명이 3년간 매년 2억6천만원의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자들에게는 해외 출장일수 확대와 책임 강의 시간 일부 감면 등 추가적인 행정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모교는 이번 연구자 지원 사업의 기간이 종료되면 연구업적을 평가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발전공로상 수상자 후보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인의 영예이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격려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 및 단체를 선정해 제5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 또는 단체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는 8월 17일까지, 발전공로상 후보는 9월 14일까지 모교 기획처(전화: 880-5081, 팩스: 889-7489, e메일: joongho@snu.ac.kr)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NOW DANCE 전시초대권

일시: 2012.7.19-9.16 장소: 서울대학교 미술관

본 초대권 지참시 동반 1인까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신문

창간 60주년 행사

대학신문(주간 李奉柱 사회복지81-85)은 지난 7월 9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룸에서 창간 6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대학신문’은 1952년 2월 4일 타블로이드 4면으로 출발해 1974년 국내 대학신문으로서 최초로 매주 8면 발행을 시작했다. 1988년 국내 대학신문 가운데 최초로 가로쓰기 편집전환 및 전산편집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금까지 국내 대학의 신문문화를 선도해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학신문의 역사를 회고하며 앞으로도 ‘대학신문’의 ‘잠들지 않는 시대정신’을 모토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중재위와 토론회

법학전문대학원(원장 丁相朝 법학78-82)은 언론중재위원회(회장 權誠 법학60-66)와 공동으로 지난 6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정책 관련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과 문제점, 두 번째 세션에서는 로스쿨 관련 보도의 문제점 및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한 대응방안이 다뤄졌다.

이밖에도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자들과 모교 로스쿨 재학생들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榮)

‘창업가정신센터’ 본격 출범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愚日)이 최근 관악캠퍼스 공과대학(39동)에서 ‘창업가정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는 공학지식에 기반을 둔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창의성(Creativity) 마인드 강화, 도전정신, 리더십, 사회·경영 마인드 강화, 사회진출 경로(Career path)의 다양성 제시, 연구성과의 실용적 가치 증대를 목표로 삼았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任廷基부총

장, 공대 李愚日학장을 비롯해 재학생 1백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교 제1호 벤처기업인 ‘SNU 프리시전’ 朴喜載(기계설계79-83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대표가 ‘공학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李愚日학장은 “공학교육과 연구에 있어 창업가정신에 기초한 도전정신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창의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창업가정신센터는 공학교육과 연구 전반에 창의성·도전정신·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故 申光鉉교수 유가족

보물 ‘申緯 해서천자문’ 기증

모교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故 申光鉉(영문80-84)교수의 유가족이 지난 7월 25일 보물 제1684호인 ‘신위 해서천자문(申緯 楷書千字文)’을 모교에 기증했다.

‘신위 해서천자문’은 평산 申씨인 申교수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로,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5)의 후손인 申교수는 생전에 이 보물을 모교에 기증하기를 희망했다.

이 천자문은 시·서·화 三絶로 알려진 조선후기의 주요 작품으로 신위는 대나무 그림과 글씨가 창나라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

2011년 7월 작고한 申교수(당시 50세)는 관악산 자하동에 위치한 모교와 자하 신위와의 인연을 남다르게 생각했다.

모교는 ‘신위 해서천자문’을 박물관에 영구히 보존해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교통 曹玉換회장
曹 植선생 연구에 5억원

지난 7월 26일 부산교통 曹玉換(사진 右)회장이 조선시대 유학자 南冥 曹 植선생의 사상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위해 5억원을 출연했다.

발전기금은 창녕 曹씨 문종이 기부한 2천만원과 함께 曹회장의 취지에 따라 ‘남명학시민연구기금’을 조성하고 曹 植선생의 사상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사범대에 ‘남명학시민교육연구실’을 개설하고 曹 植선생의 사상과 삶을 연구하며 이를 시민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曹 植선생(1501~1572)은 조선 중기의 저명한 유학자이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의병장으로도 활약해 행동하는 지성인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사재를 쾌척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 연구에 힘쓰고 있는 농우바이오는 모교에 ‘분자육종협력연구기금’을 설립하고 5년 동안 매년 5천만원씩 기부할 예정이다.

발전기금은 기업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전한 식탁을 수호하는 농생대의 육종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금을 사용할 방침이다.

1967년 설립된 농우바이오는 국내 종자산업의 리더 기업으로 현재는 미래 생명공학 분야에 진출해 세계에 한국 종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능성 작물 재배와 첨단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종자의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농우바이오 金龍熙회장
농생대에 2억5천만원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채소농업과 고품질 종자를 연구하는 농우바이오 金龍熙(사진 右)회장이 모교 농생대 발전기금 2억5천만원을 출연했다.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생명공

재학생의 소리



세상 바꾸는 글로벌기업을 꿈꾸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 학생벤처네트워크와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는 秦熙庚입니다.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시각디자인을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디자인컨설팅회사를 만드는 것을 꿈꾸며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유일한 창업동아리인 학생벤처네트워크(SNUSV :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Venture Network)를 선배님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 SNUSV는 1996년도에 초대 회장 송병준 선배님(현 게임빌 대표)께서 벤처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모아 만든 서울대 유일한 벤처창업동아리입니다. 재료공학부 洪國善교수님의 지도 아래 현재 2백50명이 넘는 정회원이 있으며 한국에서 제일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학생창업동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SNUSV의 핵심가치는 ‘실제창업’입니다. 코스닥 28위인 게임빌을 포함해 이투스, 누드교과서, 공신, 스피케어, 스테디코드 등 40여 개의 벤처기업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동아리 안에서 창업팀들이 구성이 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선배들의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USV는 전국의 학생 창업을 주도하는 동아리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매년 동아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학생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주최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글로벌 기업가정신 워크숍인 MIT-GSW의 주최권을 획득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주최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SNUSV가 주축이 돼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이하 SSN : Student Startup Network)를 만들어 총 44개 대학 69개 동아리가 포함돼 있는 학생 창업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SSN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서울대 문화관에서 전국 1천5백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학생창업 페스티벌’을 열게 됐습

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SNUSV는 점점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선배님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우선 SNUSV는 현재 학교밖에 위치하는 연구공원에 동아리방이 있으며 학교 중심과 떨어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선도대학 및 한양대 같은 대학과 비교하면 학생들이 창업

秦 熙 庚(경영10입)
학생벤처네트워크 회장

후 입주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 및 창업자금 지원 등 여러 부분에 있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SNUSV는 멘토단 구성에 관련해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및 기타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선배님께서는 저희가 이번에 구성하려는 멘토단에 오셔서 끈끈한 관계를 맺고 많은 격려 및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USV에서 facebook보다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기업이 탄생하기를 기원하며, SNUSV 화이팅!

리모델링 기금 4백억원 모금중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관장 朴枝香)은 제2도서관 신축과 기존 도서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2014년까지 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2012년 7월 기준) 관장이종환교육재단 李鍾煥(AMP 7기) 명예이사장이 신축기금 6백억원을 쾌척했으며, 동문 79명을 포함한 총 1백70여 명이 6억5천6백88만7천원을 출연했다.

이에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4백억원을 추

가로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朴枝香관장은 “도서관 리모델링 기금은 후배들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동문들이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모금 사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봉사단’ 발대식
체계적 나눔활동 추진

지난 7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에서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및 재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글로벌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글로벌 봉사단은 모교가 해외 자원 봉사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동아리를 통합해 국제무대에서 재학생들이 봉사과 나눔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모교의 해외봉사는 2007년 기초교육원이 해외봉사 관련 교과목을 마련하고 단과대학이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면서 매년 1백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해 활성화됐다.

이번 하계 프로그램에는 1백30여 명의 재학생이 참가하며, 올해부터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스누봉사단’과 ‘해비타트 봉사단’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榮)

중앙도서관 기금 모금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모교 중앙도서관은 지난 3월 13일부터 제2도서관 건립과 기존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위해 모금 운동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일류 대학의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운동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 간: 2012년 3월~2014년 2월

◆참여방법

- 무통장 입금(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농협 079-17-000136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 신용카드: 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납입
- 방문납입: 발전기금 또는 도서관에 직접 전달 가능
- 자동이체: 출연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에서 매달 일정액 기부금 처리 가능

◆문의: 02)880-9374~5, libplan@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장 朴 枝 香



어디, 새로운 소재 없을까?

소재의 차이가 미래의 차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믿습니다. 소재, 그 무한한 가능성이 활짝 피어난다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소재, 그 무한한 가능성

‘TORAY’ 도레이첨단소재

필름 광학용 필름 및 차세대 고기능 필름
섬유 위생용 및 산업용 부직포, 고기능 원사

IT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및 전자정보재료 등
친환경 수처리 사업 및 분리막, 생분해성 수지 제품

탄소섬유 산업용 탄소섬유, 탄소섬유 복합재료(CFRP) 등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용 소재 및 태양광 관련소재

콩트 릴레이

오마르

崔秀哲(불문77-81)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몇 년 전에 나는 석 달가량 프랑스 파리에 머문 적이 있었다. 파리의 만국 기숙사촌이라는 곳의 영국관에 방을 하나 얻게 됐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 마침내 내 방에 혼자 남게 됐을 때, 갑작스레 막막함이 밀려들었다.

그날 밤 꽤 늦은 시각에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하고 물었다.

“알로?”

그러나 한동안 응답이 없었고, 내가 다시 “여보세요?” 하고 묻자 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

잠시 후 문을 열자

히잡으로 머리를 가린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삼십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시 깊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오마르를

찾는다고 말했다.

비로소 나는 오마르가 아랍계 이름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

“오마르?”

여자는 오마르라는 남자를 찾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는 이곳에 없고, 오늘부터 내가 이 방에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깊은 울림이 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다시 울렸다.

“오마르?”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자 다시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여자는 내게 오마르와 통화할 수 없냐고 물었다. 내가 세 번째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그녀는 그럼 오마르는 어디로 갔느냐고 되물었다. 알아듣기 어려운 프랑스어 발음이었다. 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저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었는지 곧 뚜뚜 하는 신호음이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선뜻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너무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서 오히려 슬픔이나 절망의 기이한 여운이 느껴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금 시구를 읊조리듯 ‘오마르?’하고 물어올

듯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구내식당에서 유학생으로 보이는 한 한국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초조해하는 기색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삼십대 중반의 한 프랑스 남자가 바짝 붙어 앉아 뭐라고 말을 붙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젊은 한국인 유학생은 반기운 기색을 보였고, 반면에 그 옆의 프랑스 남자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곧 셋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 유학생이 아직 프랑스어가 미숙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프랑스 남자가 선의를 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다고 말했다. 비로소 나는 오마르가 아랍계 이름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나로서는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오마르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고, 나는 오마르를 만난 적도 없다고 네 번째로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방안을 훑어보고, 나는 방문을 활짝 열어서 안을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녀는 고개를 한 번 길게 뻗었다가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는 눈 주위에 다크 서클이 역력한 얼굴로 나를 잠시 바라보고 나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몸을 돌려 천천히 복도를 따라 내게서 멀어져 갔다.

며칠 후, 나는 같은 동에 사는 한국인 화가와 현관에서 마주쳤다. 그는 삼십대 후반의 나이였는데, 기숙사촌에서 지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밤 외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한 번은 그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자신의 특별한 취미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밤 열 시쯤에 포트 도를레앙 근처에 있는 카페를 찾다고 했다. 기숙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밤거리를 산책할 겸해 그곳까지 걸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지만 그 점은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서구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게 자신의 작품 활동에 적잖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날 한국인들 몇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화가의 밤 산책이 화제에 올랐을 때,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의 방향을 돌렸다. 그 자리가 끝난 뒤에야 나는 내막을 알 수 있었다.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파리에 나와 있는 한국인 교수 한 사람이 화가에 대한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줬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실 화가는 밤에 여자를 낚으러 가는 것이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가리지 않고, 술에 취한 모든 여자가 그의 사냥감이었다. 그는 특히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여자들을 자기 방으로 데려오곤 했는데, 한 번은 여자가 아침에 깨어나 그에게 공격을 가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또 한 번은 동침한 여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를 문제 삼는 바람에 파출소에 출동해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기도 했다. 한국인 교수는 다소 진부하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마쳤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보다 섹스가 더 절실한가 봅니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나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화가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연한 초록색 상의에 베이지색 셔츠를 걸치고 있었는데, 깔끔하고 정갈한 인상을 연출한 기색이 역력했다.

화가가 악수를 한 뒤 나를 지나치려 할 때, 내가 물었다.

“혹시 오늘 나도 데려가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화가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는 큰길로 나가서 나란히 걸으며 내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남들이 자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나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호젓이 밤 외출을 하고 적절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기회가 되면 사랑도 할 뿐, 무리하게 뭔가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때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도 벌어지지만, 그건 이미 밤 외출을 나설 때 감수해야 하는 사항들일 뿐이었다.

이윽고 우리는 포트 도를레앙에 있는 한 카페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내가 포도주를 시키자 얼마 후에 웨이터는 포도주 한 잔과 함께 붉은색 칵테일을 가져와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내가 술을 마시느냐며 놀리는 시늉을 하자, 그는 그냥 보기 좋아하라고 쟁기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 후로 그는 간간히 여자들만 있는 자리를 골라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 두어 팀은 그에게 그저 다정한 답례를 보냈을 뿐,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마침내 세 여자가 우리와 합석했다. 화가가 그들을 위해 백포도주 한 병을 주문했는데, 그때 이미 나는 온몸이 술기운으로 축 쳐져 있었다. 화가가 나를 소설가라고 소개하자, 내 옆자리의 여자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내 얼굴을 뽀뽀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술 취한 눈동자 위에 술 취한 내 모습이 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낮익은 젊은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게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 내가 기숙사 구내식당에서 동성애자의 마수로부터 구해 낸 바로 그 젊은 유학생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로 그때의 그 프랑스인 동성애자가 바짝 붙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 채 구석 자리로 가서 나란히 앉았다. 프랑스 사내가 술을 주문하고는 유학생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몇쪽은 미소를 슬쩍 지어 보였다.

내 맞은편에서는 화가가 반쯤 부서진 프랑스어로 열을 올려 말하면서 갑자기 현란한 제스처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취기가 솟구쳐 올라서 눈앞이 어지러웠다.

문득 식당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는 청색 타일, 그 위에 그려진 아라베스크 문양이 내 눈에 들어온다. 나는 프랑스 남자와 잔을 부딪치는 젊은 유학생을 바라보다가 화가 쪽으로 눈을 돌린다. 나는 이 세상의 이토록 다양한 사랑의 삽화들 앞에서 다시 눈앞이 가물가물해진다. 나를 포함해 그들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빙글빙글 돌아가며 아라베스크 문양을 이룬다.

내 옆의 여자가 내게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뒤편 파렐트 꼬맹?”

나는 가급적 깊은 울림을 일으키기 위해 애쓰며 대답한다.

“오마르.”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 - 07)

주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프랑스 남자는 어딘가 미심쩍었다. 내가 짧은 프랑스어 실력으로나마 그에게 신분이 뭐냐고 캐묻자, 그는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는 별떡 일어나 식당을 나가버렸다. 나는 유학생과 함께 식사하고서, 낯선 외국 남자의 호의를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충고를 한 뒤 그와 헤어졌다.

그날 밤 누군가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끼에라?”

내가 누구냐고 묻자 문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울렸다.

“오마르?”

낮게 울리는, 한밤중에 들려오는 노래의 한 소절과도 같은 그 소리에 나는 한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잠시 후 문을 열자 히잡으로 머리를 가린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삼십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시 깊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오마르를 찾는

동 정

수 상

▲張忠植(역사교육52입 단국대 명예총장)= 최근 사단법인 한국상록회로부터 제20회 인간상록수(교육·사회운동부문)에 선정.

▲崔滿麟(조소54-58 모교 조소과 명예교수)= 오는 9월 5일 서울 반포4동 예술원에서 제57회 대한민국예술원상(미술부문) 수상.

▲朴喆熙(국문55-59 서강대 명예교수)= 지난 7월 21일 한국시조시인협회가 수여하는 제1회 인산시조평론상 수상.

▲金承鈺(불문60-65 前세종대 교수·소설가)= 오는 9월 5일 서울 반포4동 예술원에서 제57회 대한민국예술원상(문학부문) 수상.

▲申成澈(응용물리71-7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지난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尹保鉉(의학73-79 모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지난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洪國善(재료공학76-80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 지난 7월 12일 한국무역협회 산학협동재단으로부터 제34회 산학협동상 수상.

▲李相輝(화학공학82-86 KAIST 특훈교수·아시아생물정보학회 연합체 회장)= 최근 국내 학자로는 처음으로 미국 산업미생물생명공학회에서 수여하는 찰스툼스상 수상.

▲黃美淑(식물83-87 국립수산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센터 박사)= 지난 7월 6일 미국 조류학회로부터 프로비질리상(최우수 논문상) 수상.

▲郭 哲(의학85-91 모교 비뇨기과학교실 교수)= 지난 7월 5일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2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吳國煥(의학86-92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 지난 7월 5일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2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鄭勝允(공법87-92 부산대 교수)= 지난 7월 3일 과거사 정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 수훈.

▲金圭石(의학89-96 분당모교병원 교수)= 지난 7월 10일 두산그룹 연강재단으로부터 연강학술상(의학논문 부문) 수상.

▲이정원(전기공학96-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근 이탈리아 피사에서 열린 제26차 컴퓨터 보조 방사선과학 및 의학학회에서 컴퓨터 보조진단 부문 최우수 포스터상 수상.

▲이지람(국악98-02 소리꾼·아마도 이지람 밴드 멤버)= 최근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제3회 흥진기 창조인상(문화부문) 수상.

▲姜在昇(대학원01-03 모교 해부학교실 교수)= 지난 7월 5일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2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柳惠熙(AMP 29기 경동제약 회장)= 최근 성균관대 경영관에서 대한경영학회로부터 경영자대상 수상.

▲金敎台(AMP 61기 삼정KPMG 대표)= 최근 아동복지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權点柱(AMP 65기 신한생명 사장)= 최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한국서비스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인 사

▲權肅一(물리54-58 모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지난 7월 13일 임기 2년의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에 선출.

▲李順載(철학54-58 가천대 석좌교수·연극동문회장)=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홍보대사에 위촉.

▲李漢東(행정54-58 前국무총리)= 지난 7월 31일 국한훈용론을 주장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초대 회장에 선임.

▲韓相福(사회56-61 모교 인류학과 명예교수)= 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학술원(인문·사회과학부 제3분과) 회원에 선임.

▲愼鏞廈(사회57-61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학술원(인문·사회과학부 제5분과) 회원에 선임.

▲李鍾哲(응용미술58-63 퍼시픽호텔 대표)= 지난 7월 1일 임기 1년의 한양로타리클럽 제57대 회장에 취임.

▲張虎男(화학공학63-67 KAIST 명예교수)= 지난 7월 9일 임기 3년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명.

▲李建鏞(작곡65-74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지난 7월 19일 서울시오페라단장 겸 세종문화회관 서양음악총괄 예술감독에 임명.

▲金容喆(철학67-71 前MBC 부사장·前한국방송협회 이사)= 지난 7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선임.

▲林玄鎭(사회67-71 모교 사회학과 교수)= 최근 아시아 학자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세계사회경제학회 집행행이사의 이사로 선임.

▲高永宙(화학공학67-71 前서울남부지검장·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지난 7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 선임.

▲金英俊(응용물리72졸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 지난 6월 7일 임기 4년의 광주과학기술원 제6대 총장에 선임.

▲徐維憲(의학67-73 모교 약리학교실 교수)= 지난 7월 4일 대구경

www.paradisegroup.co.kr



고객의 삶을 예술로 디자인하는 파라다이스

(주) 파라다이스 / 파라다이스캐피탈 / 부산·골든게이트·제주 그랜드·제주 롯데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인천·사파리파크 케냐 / 파라다이스 스파 & 호텔 도쿄 / 파라다이스 티엔엘 / 파라다이스 면세점 / 파라다이스 건설 / 파라다이스 산업 /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한국현대문화관 / 학교법인 계원학원(계원디자인예술학교 / 계원예술고등학교 / 계원예술학교)



북과학기술원 부설 한국뇌연구원 초대 원장에 선임.

▲金相九(식물67-74 모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학술원(자연과학부 제2분과) 회원에 선임.

▲成樂寅(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7월 31일 임기 3년의 경찰위원회 제8대 위원장에 선출.

▲崔瑛明(산업공학69-76 前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장)=지난 7월 9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에 임명.

▲金均燮(항공공학70-74 신성슬라에너지 부회장)=지난 6월 11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취임.

▲李相勳(화학공학71-75 前대광산업 사장)=최근 종합제지업체인 한솔제지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徐南洙(철학71-75 前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前교육과학기술부 차관)=지난 7월 13일 경주 위덕대 제5대 총장에 선임.

▲申東雲(법학71-75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7월 12일 출범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洪錫肇(법학71-75 보광웨마리트 회장)=지난 6월 2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모나코 명예영사에 임명.

▲崔志成(무역71-77 삼성전자 부회장)=지난 6월 7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선임.

▲金星煥(경제72-76 외교통상부장관)=지난 7월 31일 유엔 '포스트-새천년 개발 목표(MDGs)' 개발협력 의제 준비를 위한 고위급 패널 위원에 임명.

▲李哲徽(무역72-76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지난 7월 18일 서울신문 주주총회에서 사장에 선임.

▲徐永柱(법학72-76 前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지난 7월 9일 한국조선협회 부회장에 선임.

▲朴聖姬(가정관리73-77 세명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

▲朴勝俊(중문74-78 인천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

▲金正翰(농학74-78 前웅인시 부시장)=지난 7월 27일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에 취임.

▲曹喜庸(경제75-79 前한국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前주스

웨덴 대사)=지난 7월 16일 주캐나다 대사에 임명.

▲權東一(금속공학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최근 미국 기계기술자협회(ASME) 표준인증평의회 대의원에 임명.

▲裴東俊(농경제75-79 前한국GM 상무)=지난 7월 24일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인 S&T모터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安洋玉(체육교육75-79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장)=지난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

▲朴魯壁(외교76-80 前주우크라이나 대사)=지난 7월 20일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임명.

▲朴錫享(동물76-80 국립환경과학원장)=지난 7월 12일 국립과학기술연구기관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임.

▲朴賢愛(간호76-80 모교 간호학과 교수)=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간호정보학회 총회에서 임기 4년의 회장에 선출.

▲李載元(법학76-80 前서울동부지방법원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지난 7월 18일 법제처장에 취임.

▲韓渭洙(법학76-80 前서울고법 부장판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지난 7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에 임명.

▲李東官(정치76-81 前정와대 홍보수석비서관·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24일 정부의 문화·홍보 분야에서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언론문화협력대사에 위촉.

▲申浩澈(의학76-82 前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성균관대 교수)=최근 강북삼성병원 제8대 병원장에 선임.

▲趙泰永(경제77-81 前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주방글라데시 대사)=지난 7월 19일 외교통상부 대변인에 내정.

▲朴恩熙(대학원81졸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대표)=지난 7월 1일 서울 신도림 대성디큐브아트센터 극장장에 취임.

▲吳在錫(외교78-85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30일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본부장에 선임.

▲吳俊日(대학원81-83 부경대 교수)=지난 7월 8일 한국영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

▲申重澈(경영82-86 前한국편드평가 대표)=지난 7월 9일 편드평가사 KG제로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李在鵬(행정83-85 前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지난 7월 16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제5대 원장에 취임.

▲許殿道(동양사학83-89 교보문고 전무)=지난 8월 1일 교보문고 및 교보하트팩스 대표이사에 취임.

▲朱鎮亨(의학84-90 강원대 교수·한국치매협회 사무총장)=지난 7월 12일 강원대 병원 제5대 병원장에 취임.

▲金永燮(원자핵공학87-95 연합뉴스 정보사업국 차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1일 연합뉴스 PR기획서비스팀장에 선임.

▲지중배(작곡01-08 지휘자)=최근 독일 트리어시립오페라극장 수석 상임지휘자 겸 부음악감독에 선임.

▲朴舜浩(AMP 43기 세정그룹 회장)=최근 동아비즈니스포럼 제2대 대표에 선임.

▲林昌燮(AIP 31기 하나금융그룹 고문)=지난 6월 22일 하나대투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김지년(AIP 38기 前한국전력배전운영처장·동양그룹 발전사업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 11월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혜택은 물론 차별화된 만남 주선, 동문미팅파티 등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철저한 비공개 회원관리
-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추천.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 수상
- KBS TV가이드 제휴사
-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N 엔노블 결혼 정보 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추진단장)= 지난 8월 1일 동양과 위 대표이사에 선임.

행 사

▲明泰鉉(기계공학46-50 前송원 기업 대표)= 지난 8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가족·친지를 초청해 米壽宴 개최.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본회 부회장)= 지난 7월 13일 전북 군산시 대야면 대야초등학교에서 흥상 제막식 개최.

▲俞東濬(잡사56-60 先農會 회장·정조대왕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 지난 7월 10일 수원시 용주사에서 사도세자 2백50주기 기신제 개최.

▲卞柱仙(영어교육60-64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8월 8~1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꿈, 행복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제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 지난 7월 9~13일 수원가족여성회관에서 휴먼갤러리에서 '6580원로작가, 예술을 품다'를 주제로 사진, 문인, 미술작품전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 지난 7월 30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세금 및 회계법제의 최근 동향과 평가'를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金仲秀(경제66-73 한국은행 총재)= 지난 8월 1일 중국 대련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 정례회의에 참석.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지난 7월 3~4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된 아시아 사회적 기업 리더 공동 포럼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金仁圭(정치69-73 KBS 사장·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회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7월 24~26일 평양을 방문, 조선중앙방송계권 지원문제 등 협의.

▲金能煥(법학71-75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7월 30~3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선거관리기관협의회(AAEA) 집행위원회 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

▲李胤鍾(경영80-84 아주캐피탈 사장)= 지난 7월 18일 대학생 30

여 명으로 구성된 'AJC대학생 경제봉사단' 발대식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트락회 이사)= 지난 7월 27~30일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유스캠프장에서 제47회 전국 대학생 하계수련회 개최.

▲金琉璃(기악93-97 첼리스트·독일 오스나브뤼크교향악단 수석보)= 지난 7월 22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동생(피아니스트 金憲宰)과 함께 듀오 리사이틀 개최.

▲金容和(기악96-01 피아니스트)= 지난 8월 12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드뷔시,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최유진(기악98-02 바이올리니스트)= 지난 7월 9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지난 6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의 불교도를 대상으로 국민화합

대법회 개최.

▲安鎬元(HPM 6기 한국심성교육개발원장)= 지난 7월 13일 경기도 평택시 굿모닝병원에서 목사·호스피스대상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

삼가 명복을 빕니다

金瓊元 前주미대사



지난 7월 22일 서울국제포럼 金瓊元(행정54입) 명예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1936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한 고인은 미국 윌리엄스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대·고려대 교수를 거쳐 1975년 대통령 국제정치담당 특보로 임명됐다. 1980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됐고, 주유엔 대사를 거쳐 1985~1988년 주미대사를 지냈다. 이후 사회과학원 원장,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연장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았다. 오페라에도 조예가 깊어 한국바그너협회를 창립해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韓昌燮 KPA 사장



지난 7월 12일 미주한국통신사(Korean Press Agency) 韓昌燮(정치57-62) 사장이 별세했다. 향년 75세.

1966년 플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도미한 후, 1978년까지 동화통신 뉴욕특파원, 합동통신 유엔주재 특파원을 역임했다. 1981년 일시 귀국해 합동통신 외신부장을 지낸 후 1984년 다시 도미해 1989년까지 합동통신 미주지사장으로 활동했다.

1989년 KPA를 설립해 운영해오면서 뉴욕지부동창회장, 미주동창회 편집고문·논설위원을 맡아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했다.

- ▲朱權源(경성제대43졸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8월 5일 별세(94세)
- ▲權寧炫(상학54-58 前외환은행 부장)=7월 25일 별세(79세)
- ▲徐漢革(농경제56-61 前노랑진수산시장 사장)=7월 3일 별세(75세)
- ▲鄭哲基(교육59-63 前국회의원)=7월 11일 별세(75세)
- ▲高昌舜(대학원60-62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8월 6일 별세(80세)
- ▲金義植(행정60-64 前롯데그룹 전무)=7월 30일 별세(72세)
- ▲吳亨燮(기계공학67-74 前SK건설 이사)=7월 17일 별세(65세)
- ▲崔道亨(기계공학68-72 KAIST 교수)=8월 3일 별세(62세)
- ▲金興來(환대원72-74 前행정자치부 차관)=7월 9일 별세(71세)
- ▲鄭 革(원예74-78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7월 6일 별세(57세)
- ▲李成炯(대학원82-85 모교 HK교수)=8월 1일 별세(53세)
- ▲朴根榮(AMP 25기 前해태제과 사장)=7월 16일 별세(72세)
- ▲文炳樺(AIC 14기 前MBC미술센터 사장)=7월 12일 별세(60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B112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주식회사 감마누
gamma nu
IMD FREE ANTENNA

IMD FREE ANTENNA 라는 슬로건으로 저희 회사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금형, 가공, 예칭, 도금 등 협력업체의 직원들까지 Coherent 하게 하나되어 오늘도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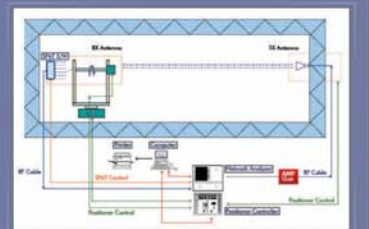
lte

AISG

Far field Antenna Anechoic Chamber



Size (m): 26 x 12 x 12 (1536 m³)
Test frequency range : 400MHz ~ 40GHz



Antennas for Advanced Mobile Communications

Gamma Nu is committed to keep the network reliable in any conditions.

gamma nu
IMD FREE ANTENNA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385 | Tel. 031-831-8800 | Fax. 031-831-8811 | sales@gammanu.com http://www.gammanu.com

BBDO Korea
DDB Korea
Dentsu Korea
TBWA Korea

한국에서 잘 통하는
외국 광고회사처럼



해외에서도 잘 통하는 한국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전세계 20여개 거점을 둔 글로벌 컴퍼니 이노션,
국내 광고회사 최초 슈퍼볼 광고제작,
한국형 길거리 응원장인 팬파크를 전세계로 수출,
세계최초 아이폰 영화 '파란만장'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세계최초 4D 극장 광고 등으로
세계로부터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에게 가장 한국적인 답을,
글로벌기업에게 가장 글로벌한 답을

INNOCEAN
WORLDWIDE

INNOCEAN WORLDWIDE Beijing • Bratislava • Chicago • Frankfurt • Huntington Beach • Istanbul • London • Madrid • Milan • Moscow • Nanjing • New Delhi • New York • Paris • Prague • Sao Paulo • Seoul • Shanghai • Sydney • Toronto • Vienna

starmix
haaga
Quality made in Germany

세계 유일의 특허!!

무동력 진공청소기

Haaga 스위퍼의 고유한 특성

1. 독창적인 디스크 브러쉬 시스템 사용
2. 터보 스위핑 시스템으로 강력해진 청소력
3. 브러쉬 품질 보증(4년)



NEW

- 일반 가정 및 정원 청소용
- 산업 현장용



Made in Germany **starmix**



산업용 진공청소기

- ✓ 건 · 습식 청소
- ✓ 자동필터 처리기능 장착
- ✓ 간편한 유지보수



SEOKWANG HI -TECH

www.seokwang.co.kr

서광하이테크(주) 031)707-1811

Always Wow Price!

매일, 놀라운 가격을 빅마켓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형
롯데회원제 할인점
VIC Market

영업시간: 아침 9시~밤 10시 / 문의전화: 02)809-2500

회원가입

- ▶빅마켓매장에 오셔서 등록, 회비 납부시 즉시발급
(일반개인: 35,000원/년, 사업자: 30,000원/년, 신분증지참)
-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은
www.vic-market.com에서 확인하세요!

1호선독산역 1번출구에서
금천우체국 사거리 방면
(구)롯데마트 금천점



Hansol
한솔CSN

More than
LOGISTICS



상품 특성에 맞는 산업별 특화 물류, 선진 물류정보 시스템,
경험에서 비롯된 물류 운영 기반의 Consulting까지..

한솔CSN은 고객사 물류의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경영 파트너로서, 물류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의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물류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 그 이상의 물류, 바로 한솔CSN의 Business Solution입니다.



TM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OMS
(Order management system)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FIS
(Freight information system)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동 22층 | TEL.02.3287.7400 | FAX.02.6031.0980 | www.hansolcsn.com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2012년도 정부재정지원금
26억 9,200만원]

알수록 놀라운 대학!

Yes! KS
부산경상대학교

Knowing, Surprising! Kyung Sang!



m.bsks.ac.kr



총장 이달덕
영어교육과 70학번

개그우먼 신봉선
부산경상대학교
방송엔터테인먼트-모델계열 99학번

NAVER

부산경상대학교



연산역

수영역

충렬사역

www.bsks.ac.kr
입학안내 051)850-1210

학교법인
화신학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



화신사이버대학교
HWASHIN CYBER UNIVERSITY



부산외국어고등학교
PUSA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공회당 사랑
부산경상대학교부속유치원
BUSAN KYUNG SANG COLLEGE LAB KINDERGARTEN

신 간

■ 이상한 전쟁

— 金東益 지음



중앙일보 사장과 정무제1 장관을 지낸 金東益 (법학 53-57) 동문의 세 번째 소설.

‘제2의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은 최근 북한의 정황과 인물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북한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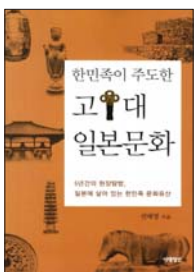
저자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북한주민의 불만과 동요가 의외로 고조돼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설은 풍부한 자료에 입각했으며 북한의 권부와 군부의 실존인물이 등장하고 있어 전쟁준비와 그 진행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 (중앙북스刊·값12,000원)

■ 한민족이 주도한

고대 일본문화

— 權泰鳴 지음



합동통신 위싱턴 특파원, 동아출판사 사장 등을 역임한 權泰鳴 (경제 58-64) 동문이 일본에 전해

진 한민족의 발자취를 추적했다. 일본문화의 원류는 대부분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사실을 고증하기 위해 5년 동안 일본 구석구석을 직접 탐방했다.

저자는 10세기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민족이 남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일본 전국에 퍼져 있는 유물을 살펴본다. 또 한민족이 고대 일본에 전한 문물로 벼농법, 제철 기술, 도기 제작 등을 꼽고 사료를 토대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한다. (시대정신刊·값18,000원)

■ 오늘의 금강경

— 柳宗旻 講解



지난 20여 년 동안 금강경을 보듬고 살아온 중앙대 조소과 柳宗旻 (조소 60-64) 명예교수의 재미있

고 현장감 넘치는 금강경 강의.

이 책은 ‘평화와 자유-열반적 정의의 길’, ‘내가 없는 평등의 길’, ‘다함 없는 복과 지혜-밝음의 길’ 등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전이 지닌 일상성과 현대성에 주목했다. 그래서 경전의 가르침이 우리 현실 생활을 진단하고 우리의 삶을 일상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기를 반복했다. (운주사刊·값15,000원)

■ ICBM 그리고 한반도

— 鄭奎壽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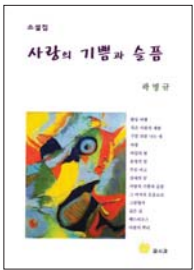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을 지낸 鄭奎壽 (물리 63-67) 동문이 한반도와 그

주변 상황을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돼 있는 탄도탄의 현황과 국방과학기술의 발달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탄도탄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현실을 바로 보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로켓이나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우리의 안보상황과 군사 전력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다. (지성사刊·값23,000원)

■ 사랑의 기쁨과 슬픔

— 郭明圭 지음



2008년 계간 ‘문학과 의식’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郭明圭 (사회 64-68 트리플라인 대표) 동

문이 첫 소설집을 펴냈다.

지난 6월 15일 출간된 이 소설집은 총 14편의 단편과 중편을 주제에 따라 ‘환상 여행’, ‘사랑의 기쁨과 슬픔’, ‘사랑의 뿌리’ 등 3부로 나눠 실고 있다.

14편의 작품이 각각 독립된 내용이었음에도 읽는 이에게는 하나의 장편소설로 느껴질 만큼 주제와 이야기가 서로 통하면서 조화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금사과刊·값12,500원)

■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가 산다

— 劉永濟 지음

한국공학교육학회장을 지낸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劉永濟 (화학공학 70-74) 교수가 우리나라 대



학교육, 대학입시,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대생은 쓸 만한가’라는 화두로 서울대가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창의성 개발, 인성 및 사회성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을 현장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야 하고, 융복합시대에 대비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의 균형 있는 교육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래刊·값13,000원)

■ 양김시대 한국언론

— 柳一相 지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柳一相 (신대원 72-74 건국대 교수) 위 원 장 이 1990년대 초반부터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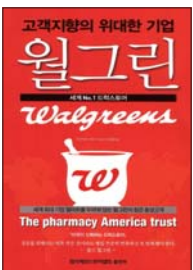
년 말까지 金泳三대통령과 金大中대통령이 집권했던 약 10여 년간 주요 일간신문과 잡지 등에 기고한 언론비평 칼럼들과 짚막한 논설문을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에는 저자의 학식과 이론, 다양한 접근방법,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 글들이 대부분임으로 한국현대사의 일부분을 이루는 한국언론과 사회, 정치와 경제 등에 대한 저자의 사고 체계가 잘 드러나 있다. (시간의물레刊·값16,000원)

■ 고객지향의

위대한 기업 월그린

— 孫大洪 옮김



그랜 와이즈 孫大洪 (응용미술 79-83) 대표가 마츠무라 키요시 (松村清)의 저서를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어떻게 월그린이 37기 연속 흑자 기록을 세우며, 월마트도 꿈쩍 못하는 세계 제일의 드럭스토어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기업이념, 고객 서비스, 인재육성, 출점전략, 매장연출, 상품구성, IT활동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월그린의 비즈니스 전략

공연

■ 徐允晋 피아노 독주회

— 8월 21일 세종문화회관

— 9월 11일 창원성산아트홀



피아니스트 徐允晋 (기약 94-98) 동문 (사진)이 8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서

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9월 11일 오후 7시 30분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독주회를 마련한다.

동아대 초빙교수, 인제대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고 경희대·창원대 대학원 외래교수로 활동 중인 徐동문은 하이든, 드뷔시, 슈베르트(8월 21일), 리스트, 슈만(9월 11일)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 趙美衡 듀오 연주회

— 8월 22일 세종문화회관



비올리스트 趙美衡 (기약 96-00) 동문 (사진)이 8월 22일 오후 7시 30분 서

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양준(경상대 교수)씨와 함께 듀오 연주회를 갖는다.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한 趙동문은 이날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피아졸라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정미현 피아노 독주회

— 8월 27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정미현 (기약 86-



90 건국대 강사) 동문 (사진)이 8월 27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정 동문은 이날 슈베르트, 슈만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성재창 트럼펫 독주회

— 8월 31일 예술의 전당



트럼페터 성재창 (기약 97-03 충남대 교수) 동문 (사진)이 8월 31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 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닉 부수석, 핀란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한 성 동문은 이날 게디게, 이베르, 하트만, 페레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金殷蘭 피아노 독주회

— 9월 5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金殷蘭 (기약 94-98 아시아예술학회 연주시) 동문 (사진)이 9월 5

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만하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金동문은 이날 하이든, 베토벤,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을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刊·값15,000원)

■ 그 섬을 만나다

— 金鎮敦 지음



문제 당한 의원을 경영하는 한의학박사 金鎮敦 (HPM 4기) 시인의 첫 시집.

金동문이

이번 시집에서 노래하는 것은 흐르고 지워지고 사라지는 삶의 모습들이다.

표제작 ‘그 섬을 만나다’는 태평양 연안 나라들이 버린 플라스틱들이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 모여 만든 세계 최대의 쓰레기 섬을 대상으로 한 이색적인 시편이다. 시인이 취한 이러한 발견의 성찰 결과가 흔한 생태적 사유로 귀결하지 않고 우리의 심원한 존재론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와세계刊·값7,0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2년 6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2. 5. 4~7. 23) · 일반 (2012. 5. 4~7. 23)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趙炳祐 = 1백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구태 법대80 △강대윤 공대77 △강완모 공대88 △강종렬 공대83 △고미나 치대03 △고봉훈 AIP11 △곽무영 농대78 △구본찬 사회83 △권순환 GLP5 △김 신 경영75 △김 철 자연87 △김경섭 공대79 △김경수 AIP39 △김경수 SPAR17 △김경운 인문93 △김경호 SPAR17 △김광기 법대82 △김기동 공대70 △김기종 FIP8 △김덕원 공대72 △김수진 의대80 △김승호 법대90 △김양자 AMR13 △김연우 AIP41 △김용배 미대88 △김용숙 사대71 △김정욱 AMP37 △김정태 법대75 △김종규 AMP29 △김종오 농대91 △김준하 사회84 △김진립 치대94 △김춘우 GLP18 △김태극 공대83 △김한수 법대86 △김현숙 AMP34 △남궁견 문리59 △남유재 경영85 △노병수 법대83 △노상관 의대81 △노은식 SPAR17 △류성영 AIP34 △류재열 AFP7 △명재선 ACAD60 △문기찬 의대67 △문성우 법대75 △민경덕 문리59 △민병찬 SPAR14 △박관호 공대83 △박광순 大院95 △박기점 AIP8 △박도준 의대81 △박봉균 수의76 △박순호 AMP43 △박재길 농대73 △배양숙 IFP2 △백문규 법대68 △변기정 치대65 △변석수 의대88 △부현일 미대58 △서정권 ACAD2

△서현수 수의91 △성환우 수의82 △소현영 사대70 △송영기 의대77 △송은영 의대92 △신범수 사회78 △신영숙 ALP8 △신해중 법대81 △심교연 공대89 △심윤조 사회73 △심재석 상대64 △안광용 공대71 △안병준 ACPM6 △오성태 의대84 △오은주 미대83 △오현규 SPAR18 △유제하 공대78 △유중근 AMP4 △윤경주 BCP4 △윤수선 치대74 △윤지현 농대84 △윤한권 AFB9 △윤홍주 大院92 △이광택 법대68 △이동진 GLP16 △이동현 ACAD69 △이명철 의대67 △이상영 공대77 △이상일 AMP27 △이석배 의대92 △이선구 약대90 △이선민 음대91 △이순자 문리67 △이영제 공대78 △이우철 법대67 △이원영 ACAD11 △이원철 법대74 △이원해 AIP15 △이장욱 농대86 △이재구 AFB10 △이재영 문리55 △이종범 인문72 △이종산 약대71 △이중우 SPAR8 △이한석 FIP7 △이한영 사대70 △이현구 의대74 △이현재 AMP54 △이호진 IFP5 △임기주 SGS17 △임도수 AMP20 △임승순 법대73 △임현술 의대71 △장희숙 사대90 △전 평 AMP67 △전이현 AIP42 △정덕교 AFB7 △정법동 공대74 △정병관 敎院69 △정영안 음대92 △정요성 AMP69 △정재민 약대77 △정표진 치대81 △정해돈 SGS5 △조규상 ALP10 △조성원 SPAR10 △조영운 SPAR7 △조영호 의대91 △조용철 문리64 △조윤신 음대91 △조정래 인문70 △조정환 치대89 △조호현 GLP14 △차정현 음대67 △최두영 법대93 △최병선 자연73

△최오길 AMP29 △최종무 문리68 △최준철 공대71 △한승욱 AIP27 △한용섭 사회74 △한윤희 AMP63 △한현숙 약대79 △현창택 공대76 △현충식 농대89 △홍영표 GLP21 △홍정희 법대68 △홍천화 ACPM7 △황연연 ALP12 △황치옥 자연84

(일반) △강성현 자연79 △강정수 사회85 △권호열 공대78 △김자영 생활03 △김재우 자연05 △김정현 사대02 △김평순 AIP46 △박성현 공대64 △박양숙 GLP22 △방민주 法院05 △신만중 공대70 △오영철 공대88 △이기택 법대78 △이길호 상대55 △이대영 인문79 △이길호 상대55 △이대영 인문79 △이병환 사대65 △이상우 SGS12 △이목진 AMP72 △이전복 사회74 △이희보 공대50 △장혜진 미대97 △정진건 공대64 △정한욱 ASP21 △정홍래 음대00 △조찬식 인문76 △진은석 공대91 △최광선 공대72 △최영환 BCP8

이 사

◆인문대 △강창일71 △고인숙72 △김능구81 △김대환84 △김덕출81 △김병철76 △김정환81 △문상원72 △박명식77 △박수현83 △박태영74 △손예철69 △손종호69 △오세중79 △오정택82 △윤상익81 △윤상필84 △윤용복84 △윤재인80 △이강근81 △이영인77 △임운봉64 △전원배73 △정재문72 △정희영83 △조용일77 △지두환73 △추희엽83 △황태순78 ◆사회대 △강종표76 △권용발74

△김 영79 △김광녕82 △김광재90 △김기식85 △김기준77 △김동선76 △김동섭81 △김영빈81 △김영희74 △남기섭76 △류성록82 △문도선83 △박 철81 △박성희75 △박종국73 △박희영80 △방창식83 △배세달77 △배현기84 △상지원86 △서동영79 △서명국84 △신봉길74 △신철식73 △심일혁89 △오대영80 △유동근92 △유성엽80 △유천일76 △이성만75 △이영성79 △이재열80 △이주홍88 △이창구73 △이홍업91 △장원영72 △장철호83 △전승철81 △전홍찬79 △정 도86 △정봉교72 △정삼봉73 △정응근87 △조현래73 △주진혁77 △최극락76 △최범수75 △최익순73 △한용섭74 △홍범교78 △홍석규75 ◆자연대 △강병도82 △금종해76 △김 윤68 △김양진83 △김한복78 △김현근77 △김현식91 △서재영83 △이덕희77 △이동한77 △이명웅77 △이창복68 △이창환85 △이철의75 △이현식73 △장대연74 △정명식80 △조제린90 △최강원81 △최윤경82 △최종권75 △한창우75 ◆간호대 △박선애73 △성송현74 △송미순70 △이병숙76 △이선자61 △정성희86 △조동란66 △홍정희86 ◆경영대 △김근수77 △김상범78 △김선운92 △김용철83 △김홍섭79 △김홍준76 △김학식76 △박기환69 △박성환80 △변은창90 △성열우77 △신동환78 △신용삼73 △유경연95 △이동호77 △이원엽87 △이재영78 △이호선75 △임기찬90 △전용주86 △황수연72 ◆공대 △강경일75 △강구선63 △강달영87 △강명구89 △강명순40

△강상균90 △강상돈92 △강효순68 △강희신85 △강희태68 △곽병현67 △곽수태78 △구창용60 △권오준02 △권용수81 △권익현69 △권정태84 △김 훈71 △김경배68 △김광옥56 △김광옥62 △김광일81 △김기남77 △김노수45 △김대모61 △김덕우81 △김덕재54 △김도심52 △김동진68 △김명수73 △김명호74 △김범석92 △김석주48 △김석홍81 △김성기80 △김성도75 △김성민91 △김성은89 △김성환66 △김수호76 △김신원64 △김영수68 △김영신89 △김원배55 △김유항62 △김인달70 △김인상67 △김재승72 △김정섭77 △김제영71 △김종식77 △김종원74 △김진기87 △김태문70 △김태선93 △김태형78 △김학세65 △김학제65 △김한섭68 △김현이77 △김호진71 △김홍균81 △김홍식76 △남승윤82 △남용민71 △남일순81 △노철근70 △노태욱69 △노환진81 △목하근76 △문석형50 △문승현79 △문영학65 △문호지84 △민경탁71 △민병선55 △박경배67 △박기찬64 △박병학69 △박상수59 △박신동65 △박영길78 △박영수77 △박용일62 △박의승73 △박일재78 △박찬민57 △박찬빈60 △박창용66 △박태권65 △박현철85 △박홍준71 △박화규77 △박황호65 △박홍철51 △배재흠70 △백만기72 △백성기67 △백승욱58 △백원필78 △변동필75 △변응현66 △서남규69 △서태석76 △선석문68 △설영화65 △성기초51 △손경엽65 △손석광75 △송우길84 △송창영68 △승효상71 △신건일63 △신성수79 △신철영70 △신훈철47 △심일보73 △심혜경53 △안재후52 △양기정67 △여인갑64 △오세기64 △오창석69 △오태식75 △우상룡72 △원정수53 △원종환52 △유병철42 △유승빈63 △윤 백78 △윤석구53 △윤세한79 △윤정현89 △윤재석59 △이 철68 △이강우79 △이계환62 △이근명63 △이능규69 △이동춘53 △이명호53 △이범호54 △이봉주67 △이봉환68 △이상엽82 △이상준76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주)대신물산 대표이사 이재철 Tel : 031-766-2314 Mobile : 010-7418-8555

△이상호92 △이석준83 △이성규58
△이성원58 △이세열78 △이영길74
△이영우79 △이용일86 △이원도59
△이원세71 △이재운63 △이재형76
△이재홍72 △이정일61 △이종국87
△이종남73 △이종화76 △이주선64
△이중성61 △이중호70 △이지원81
△이창호55 △이춘성71 △이충수54
△이태동64 △이태수77 △이화현74
△이희승60 △임병준87 △장기목53
△장지영75 △장진양67 △전효택67
△정규홍82 △정명식50 △정순전66
△정대영75 △정한모71 △정현교75
△정현일60 △조광연70 △조명호78
△조유근67 △조응수74 △조정현64
△조재열89 △조택호61 △조흥구68
△주기태69 △지 순54 △지성균71
△지인호76 △전창호89 △최규현90
△최상오63 △최영식47 △최재열69
△최정목49 △최종근84 △하규성76
△하준환51 △한재성79 △현정훈76
△홍보기89 △홍성완62 △홍성일66
△황 철71 △황대석58 △황석희87
△황중구56

◆농대 △곽영철59 △곽유신82
△권오준65 △권재홍83 △권형욱88
△김갑철68 △김경하71 △김민수73
△김상호56 △김양재78 △김완기65
△김원보73 △김일봉68 △김정목59
△김정호73 △김지훈87 △김진석69
△김택현78 △김현구50 △김훈동63
△문동준70 △문철명60 △박기수71
△박수철82 △박승우67 △박종주66
△박창언80 △박창용65 △박형만75
△배정길61 △백창영69 △변상지74
△서기호60 △서병륜69 △서승덕55
△서승진72 △송경민75 △송한용83
△신동현86 △신용석61 △신진섭78
△심용섭70 △안수구73 △양재승70
△오박철61 △오봉국48 △오세인55
△원종영62 △유 석59 △유병서59
△유해강86 △윤동원79 △윤상철80
△윤성준88 △윤여성76 △윤종철83
△이건일60 △이광희84 △이규승67
△이병래82 △이병목64 △이상걸79
△이상용61 △이선진69 △이승겸75
△이승일85 △이영호65 △이윤호68
△이임영81 △이재진65 △이형주81
△이혜근67 △이희수80 △임석원94
△임순만62 △임용택54 △임형백89
△전재성72 △정복현74 △정세진70
△정일성62 △정재용79 △정주영87
△정진구65 △정창주53 △조선종84
△조영래82 △조진환50 △주민영88
△차성윤57 △채수근54 △최동하71
△최택현61 △최주섭67 △한정남65
△허길형65 △홍동선56 △홍순명68
△홍형홍62

◆문리대 △강사육70 △강승림62
△고광용60 △고영소56 △권병두65
△권오득63 △권왈순65 △김 명67
△김건중66 △김관식56 △김상복57
△김수진57 △김승국56 △김영순71
△김용표68 △김재민67 △김종진58
△김찬근69 △남광성61 △남기민69
△노재봉53 △류성희61 △민영기57
△박범진60 △박용길66 △박용안57
△박의승60 △박하진67 △박흥식66
△방석기62 △변 형61 △석준형67
△신상우64 △신정용61 △심현철68
△안승원68 △양이훈65 △엄경일64

△오영일61 △오완영59 △오재희53
△유양수57 △윤상철55 △윤호미61
△윤홍근63 △이상열71 △이성우63
△이영래60 △이영록66 △이용태53
△이용태63 △이재형65 △이정길59
△이정남51 △이정수59 △이정윤54
△이종환62 △이충희54 △이형구59
△이효원69 △임병석54 △임의신62
△장부일69 △장정환56 △장홍주70
△정규수63 △정기호70 △정낙찬69
△정연하61 △정목자61 △정의용64
△조완규48 △조창화57 △지경홍60
△차홍봉62 △채영수68 △전상덕71
△최 웅69 △최경락71 △최서영54
△표완수67 △하영식58 △한우석51
△한태길69 △한필순57 △홍종웅65
△홍종호62 △황경호54

◆미대 △강신욱86 △고명진77
△김 정70 △김미혜78 △김민기69
△김영대67 △성기점58 △손대홍79
△오영희71 △이경렬69 △이영진54
△장윤우56 △전민숙74 △조송승59
△최미영70 △한명숙67 △한주연90

◆법대 △강 훈72 △강구태80
△강대석67 △강동세77 △강병섭68
△강상진87 △강석훈82 △강승준85
△강신원72 △강영규48 △강용식58
△강재철77 △강희철75 △강희철81
△경우근67 △경종철60 △고석홍82
△고의영77 △고현철65 △곽노준74
△구창모88 △권동철59 △권순민89
△권연상58 △권영국69 △권영상75
△권오윤56 △권혁채60 △김경태63
△김관재71 △김규복69 △김덕영60
△김동원52 △김동호56 △김두희58
△김병구84 △김병국66 △김부찬74
△김수철71 △김승진57 △김승호62
△김시영71 △김신택57 △김연곤85
△김영우56 △김영재57 △김영태84
△김영학83 △김완섭65 △김용철46
△김용환60 △김우진83 △김유동86
△김윤성76 △김이수72 △김익하60
△김인겸82 △김인중56 △김정삼72
△김정일60 △김정학71 △김정후57
△김종상65 △김종윤72 △김종춘86
△김종훈83 △김준규75 △김준희76
△김중성81 △김진우52 △김진태83
△김창복51 △김태조54 △김태현46
△김현석79 △김형렬83 △김형선57
△김형수77 △김홍현67 △노창동82
△류시열57 △류진열72 △명노승65
△문영길55 △박 만70 △박광전81
△박동섭60 △박동완64 △박성진84
△박수복77 △박순백66 △박영수52
△박영현69 △박윤훈55 △박인수57
△박장우66 △박재경57 △박정규57
△박준서58 △박창현73 △박철근55
△박철언61 △박태훈66 △박해봉83
△박형관85 △박형남78 △배 도53
△배성진89 △변동걸66 △변재일59
△서경석67 △서정석65 △서정석77
△서창희82 △성백현78 △성지용82
△송언종56 △송진훈59 △신규태56
△신인식74 △신현일77 △심명수63
△심우영59 △안상수64 △안영수84
△안용득62 △안종택73 △양재식84
△여상원77 △여상훈75 △오시열75
△오연근76 △오정면86 △우성만76
△우의형66 △유남석76 △유병규83
△유병환77 △유석원82 △유충걸64
△윤 혁71 △윤남근77 △윤동윤57

△윤보복66 △윤신승88 △윤일영52
△윤장석89 △윤준원67 △윤호일61
△윤홍근79 △은현호87 △이건개59
△이경우76 △이규오43 △이근식65
△이기배71 △이대순53 △이덕모71
△이동특59 △이무룡61 △이무상78
△이백규83 △이병석54 △이시철71
△이상국90 △이상진70 △이석수81
△이석현71 △이선우61 △이성웅61
△이성호76 △이세형68 △이세훈55
△이수영74 △이순기03 △이외수63
△이용우92 △이원규75 △이은종77
△이인표54 △이재근82 △이재방78
△이재철77 △이종상54 △이종순57
△이종주85 △이주성76 △이진배65
△이창복74 △이춘삼67 △이충범78
△이태운68 △이태창61 △이해진86
△임규운53 △임대규74 △임환홍73
△장창호63 △전명호86 △전용학73
△전용진49 △전재기58 △정경택70
△정광우61 △정구영57 △정대관75
△정덕장59 △정덕흥68 △정세용74
△정용달81 △정용인60 △정지형58
△제차룡60 △조상홍67 △조성제85
△조영삼81 △조준연85 △조철호91
△조해근78 △조해현81 △주석영79
△주우식78 △지성우66 △채 윤78
△채인석81 △최두영93 △최병덕72
△최상엽56 △최상원82 △최석원52
△최신석59 △최완주77 △최재훈49
△최정현75 △최종길83 △한 민77

△한광수65 △한부환66 △한승희55
△허순석78 △현경대60 △현순도66
△홍광식67 △황보경석50 △황영규75
△황희인74 △황이연55 △황철규83
◆사대 △강봉근67 △고영신73
△곽형기71 △국해웅63 △권 승76
△김경수60 △김광수72 △김두정73
△김성대59 △김수형61 △김승재71
△김영삼73 △김영애64 △김원용74
△김재혁73 △김재호53 △김점술82
△김종원61 △김종찬87 △김진규58
△김천수58 △김학천59 △박병기81
△박봉상59 △박세원70 △박영미75
△박영배65 △박익두64 △박재공62
△박종달49 △박화영64 △박흥일60
△방재욱68 △배영철79 △백승권53
△변범식86 △변재익65 △석용장77
△שלדונג68 △성기훈71 △손영목60
△송장섭69 △신치관68 △신하영58
△안승룡75 △안창섭61 △안희수61
△엄영주66 △여태철84 △오두범64
△오윤용60 △오창훈83 △왕문용66
△위종진91 △유덕준60 △유희임68
△윤규태65 △윤웅섭61 △윤익모62
△이광범92 △이기영68 △이기준67
△이노연58 △이병호70 △이봉수74
△이상탁67 △이성영81 △이언숙89
△이원강57 △이원호68 △이재민79
△이재원70 △이정식72 △이준동60
△이창득71 △이환기81 △장정현78
△장춘화83 △전용근73 △정강주69

△정용길77 △정응근63 △정주섭52
△정창석73 △정희성82 △조경오75
△조용복55 △주기성72 △최기숙65
△최돈형68 △최병순69 △최수현81
△최영상56 △최운식63 △최준명60
△최희유68 △하상기74 △한도연49
△홍석영85 △홍철근70

◆상대 △강승구65 △강인식65
△고두모57 △고일성54 △곽윤광60
△구선회56 △구영보69 △구정회57
△권영식66 △권영정72 △기병태53
△김기중57 △김대중66 △김민우67
△김승훈68 △김연배64 △김영섭66
△김영춘71 △김영환54 △김원길61
△김윤환67 △김창수66 △김창수68
△김창진58 △김태두50 △김하두64
△김항덕59 △나길웅61 △나진원67
△문영도50 △민형동71 △박 간68
△박성석61 △박태하58 △박해룡58
△배경일69 △배철호68 △백정기71
△백창기61 △변병주60 △서주성44
△선종승71 △손상모53 △손희균46
△송국현56 △신명수60 △신정철63
△신평재57 △심재엽63 △엄수명61
△우두현61 △우순구53 △우완식57
△유석홍61 △유원영57 △윤석현67
△윤용석58 △윤우진61 △이구수57
△이동혁65 △이상근53 △이상윤62
△이승웅60 △이용진68 △이일훈55
△이종백69 △이준용56 △이철희57
△이태형59 △이태환58 △이하룡69

years

3

casamia

까사미아 창립 30주년 1982-2012

365일,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

까사미아는 단지 가구를 팔지 않습니다.
여자의 꿈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Happy Maker입니다.
5,000여 가지의 가구 아이템과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www.casamia.co.kr | Tel. 1588-3408

casamia

△이항철54 △이호유54 △임종두61
△장덕신71 △장만화56 △장무환45
△장윤문65 △장종록57 △전문준64
△전창수57 △정주호65 △정태웅67
△조대연45 △조덕찬53 △조영삼71
△조원구64 △조원래57 △조중현62
△차태균71 △최경식59 △최남식59
△최도성70 △최동건70 △최명규46
△최명해68 △최수일55 △최영환60
△표계영58 △한도형69 △한찬수54
△홍영기57
◆생활대 △김성은83 △박복순70
△박지영87 △여의주82 △이선영78
△이화령81 △정영진68 △조혜옥59
◆수의대 △김경환80 △김계방61
△김본원63 △김성수64 △김윤수74
△김인호53 △김진구61 △박희춘66
△방극승64 △백오섭58 △서강문82
△신 심67 △오효성77 △윤화중54
△이 준62 △이강남66 △이도필49
△이성모78 △이수창61 △정용근67
△지차호70 △최윤주00 △홍상희82
◆약대 △강 서58 △강석진55
△김 유60 △김규호64 △김명수71
△김미희84 △김영택58 △김영택61
△김장호65 △김재환68 △김태근71
△김효중71 △노동출78 △맹호영81
△박승규59 △박시우69 △손인자69
△신현학56 △신화범50 △신화웅46
△심우원72 △안병옥68 △양현하66
△오성환60 △오응준58 △우재성71
△우준근61 △유태숙72 △윤승로56
△윤웅찬68 △이선구90 △이순석61
△이용영72 △임경택52 △임상웅60
△임종석78 △장석윤79 △정연진69
△정현경83 △정희용76 △조영준69
△조중현68 △최명식64 △최종수82
△한규홍64 △한병현77 △홍성환76
◆음대 △강낙영67 △강덕원69
△고광철82 △김인규65 △김혜중69
△문정원88 △박세나90 △손국민64
△신정화87 △유신선79 △유행웅60
△이방실92 △이선이84 △이영심78
△이오규70 △이재숙59 △이혜정81
△전신주67 △정복주66 △정영안92
△정혜신92 △조창연66 △차정현67
△최승준65
◆의대 △강세운59 △강승백82
△강형용44 △고영채74 △고원순68
△김근식53 △김광희55 △김근우61
△김동수83 △김동은52 △김두상89
△김명호68 △김병천66 △김성덕65
△김성오87 △김세경39 △김세엽70
△김영근43 △김예원68 △김용봉70
△김재면74 △김재윤79 △김정식68
△김종환50 △김지현89 △김창석85
△김한수82 △남도현84 △남상윤72
△동영송49 △목정은60 △문선희89
△문성무60 △문태준44 △박도준81
△박성숙65 △박소배72 △박영태70
△박이태72 △박종명69 △박호진72
△방성호66 △백태진74 △선우대환71
△성상현73 △손근찬52 △손기섭51
△손봉기73 △손정민87 △송영주74
△신기철75 △양성범75 △양승열51
△양승오75 △양승욱06 △염병결74
△오경균67 △유세화65 △유영성70
△유왕성75 △유재란84 △유대연54
△윤준기93 △이갑순55 △이강진74
△이관희75 △이명철67 △이병훈60
△이봉화75 △이부영52 △이성규72

△이순형56 △이승덕83 △이의용72
△이종복79 △이종석79 △이충원76
△이태연92 △이현구74 △전성환74
△정규병65 △정동철54 △정명관91
△조경환52 △주영수84 △최 윤76
△최세준53 △최인호70 △최훈동72
△추광철60 △한 현79 △한규섭72
△한덕중69 △홍기정81 △홍순우85
△홍영식61 △홍장의45 △황용승69
◆치대 △강효식57 △구본석78
△김경남72 △김능세70 △김보호56
△김석연68 △김수남59 △김윤이73
△김장현77 △김정욱83 △김지호59
△김태의60 △김현제87 △김현태76
△나병선69 △남용욱51 △목성규81
△박기성55 △박수훈79 △박순억66
△박승범01 △박연천72 △박용준54
△박용한78 △박찬우65 △방수남62
△배현성64 △백성기71 △백승진75
△서명우83 △서성구74 △석창인81
△손 근71 △손영경86 △송병욱86
△송영호57 △송재용82 △신동인76
△신언일71 △양원식57 △양재호64
△양재희75 △유재석70 △유태영63
△윤학영62 △이만선66 △이병우76
△이봉호86 △이상표77 △이석근90
△이성출70 △이수구66 △이승종69
△이원재72 △이윤상59 △이진결77
△이진근63 △이창우75 △이정룡70
△이현석82 △이호정86 △임순모70
△임종수81 △장명우83 △정근용52
△정관서79 △정대현69 △정삼일91
△정재영70 △정종선57 △조경석79
△조인호70 △조행작64 △허준구66
△홍정임87 △황의강61
◆대학원 △기순일94 △권병남81
△김경진84 △김문찬79 △김석웅81
△김종호84 △나병만77 △문형근79
△배명진83 △서상혁79 △송강영91
△송현호82 △심정보83 △원상봉83
△유장훈86 △이광재78 △이범수85
△이병갑75 △이사록52 △이상엽86
△이시문81 △이효수84 △임유택87
△전병서84 △전용기82 △정기화71
△정병희52 △최원희81 △황인자78
◆경대원 △김선대72 △김정태68
△김한준89 △양승현71 △양희석86
△임인규88 △장몽인66 △전도진70
△조현국73 △한기룡71
◆교대원 △송향섭64 △장석민70
△정병관69
◆보대원 △구성화67 △김윤신72
△김진한87 △박순영63 △박원길65
△박희서77 △이규한63 △정상호99
△정진택84 △최진석86 △최지원97
◆사대원 △석용진65 △이원형64
◆신대원 △김태문71 △이근수67
◆행대원 △공병영90 △권기성77
△권영규80 △김정웅05 △남호현82
△문희갑66 △배문환63 △신순우74
△양석호67 △염돈재98 △이경훈76
△이시경79 △이주성82 △장준규65
△정여철74 △지동하88 △최순현73
△허남식78
◆현대원 △권 완76 △김연명85
△김제성78 △박상락84 △박종일84
△석영철71 △양언모82 △정병환69
△황학래74
◆AMP △곽상엽34 △권오석61
△권용관58 △권점주65 △김건종38
△김봉규20 △김수환15 △김중현49

△김진섭9 △김진찬43 △김관진53
△남중철48 △노태식64 △박달용4
△박인상28 △박일동66 △서 구41
△서종덕12 △서호근60 △석 강61
△성승모1 △손병준68 △송문호38
△송언기28 △송학성63 △신동대35
△신용문68 △신재덕49 △신지윤66
△심계진36 △심학봉70 △안정화65
△안창엽68 △안희관56 △양성욱1
△오병제21 △유재열35 △유준근4
△유한섭23 △육신학57 △윤영호11
△윤용암66 △이경운67 △이규철44
△이방수37 △이상일27 △이순구63
△이용표36 △이재형59 △이태섭5
△이하우69 △전용배57 △정석재61
△정석현44 △정환진47 △조문규51
△조승현66 △지대섭56 △히정길6
△한재열22 △황복현45 △황의영59
◆AIP △고재하14 △권영렬19
△권오열22 △김경수39 △김동하29
△김서규40 △김석준11 △김성길7
△김승겸16 △김완희34 △김윤종31
△김장근15 △김종필40 △김진수29
△김휘중41 △류승영34 △박몽식16
△박무광43 △박상수42 △박영기29
△박영식28 △박용진35 △서영복19
△심영복38 △양 명9 △양희준16
△원근식43 △유길상9 △윤명수30
△윤백중4 △이갑순9 △이대만24
△이덕영23 △이상길41 △이석준27
△이선재42 △이의현20 △이종호31
△이창규11 △전이현42 △전종윤10
△주영현12 △최순규36 △최정남22
△최창호7 △추현식32 △홍재성40
△황이남22
◆ACAD △강남주56 △권도중49
△권영호60 △권태석60 △김 진65
△김광수68 △김광철47 △김상태45
△김우연14 △김재영67 △김정록73
△김종식60 △김종웅39 △김철환46
△김태환38 △명재선60 △박명규40
△배상철67 △서대일37 △신은우56
△안근일68 △이강국63 △이덕수44
△이상영40 △이원영11 △이종간55
△이진영56 △전병수42 △정동우6
△진강현20 △최형태68 △황갑주48
◆ABP △김성일15 △김수동32
△김영근15 △김정탁23 △김현식20
△박대영30 △박준명12 △심형보16
△이상래24 △이관철3
◆SGS △고병준22 △김광두3
△김봉규25 △김수근2 △김종호4
△박종인5 △이래원6 △이창섭7
△정병재5 △조승연25 △최상석2
△황용영2 △황중현18
◆APC △김복승3 △이상진9
△이용배5 △장신현3 △함춘조2
◆HPM △권기진8 △권영욱11
△권오성23 △김광대2 △김광화9
△김민규23 △김병수9 △김중근16
△노동일7 △박전표11 △방금석2
△배영봉14 △양동근12 △양통권23
△염신희14 △이상완11 △이석기14
△이재우23 △이정희12 △이전수9
△이태수6 △전성혁13 △정수경26
△정지문14 △정호용8 △조정식23
△주영진2 △채상식17 △최병용9
△하경호27 △한훈섭10 △황경수23
◆AMPP △강철환10 △나종팔6
△류귀식7 △최종식6 △홍석우9
◆AIC △김영배2 △김운식29

△김현식2 △박인주7 △배대현25
△백재현4 △웅상순7 △이강록13
△이정재2 △장낙진13 △조정구8
◆AFB △김관택10 △김규태1
△서문환9 △성태섭1 △양근영10
△이화식9 △장세영8 △전만호6
△조창섭10 △허선욱9
◆AMPFRI △강동원27 △김병문17
△김복엽23 △김일동8 △김정훈1
△박재호23 △서재용22 △이규태14
△이병윤26 △이춘희9 △최창혁4
◆ACMP △권오봉6 △김범용6
△김승택6 △김재호6 △김정식3
△김창환5 △남관우5 △민평기4
△박상남3 △박찬의7 △이근성1
△정원배3 △정일주1 △정재훈7
△진성의4 △하대청5 △형병택6
◆FIP △김기종8 △김성하6
△김인중8 △서덕화2 △양태운4
△우영대7 △이재병1 △정재익2
◆GLP △강병섭21 △강석태6
△권덕수15 △김경식2 △김영숙16
△김영훈18 △김용태17 △김원철15
△김중대20 △김창송21 △김형중17
△노윤호12 △류명선21 △박세연20
△박영식18 △서승욱19 △손영수3
△신명진13 △유영덕7 △유운산11
△윤여표11 △이동진16 △이석형12
△이승구15 △이용문17 △이용섭18
△이원욱11 △전진규16 △최진철18
△한충권20 △홍영표21 △홍재희20
◆ALP △김재현2 △박 찬12
△소진세12 △손용근6 △신영숙8
△조규상10 △황은연12
◆SPARC △김경호17 △김달수1
△김인환2 △김종순19 △김창근18
△김학준16 △박찬욱18 △방용수16
△신진문12 △오현규18 △유승만3
△이덕록7 △이수원15 △이영환16
△이의시9 △임석우19 △장재진2
△정운호9 △허상록11
◆AFP △정일채8 △조원국5
◆ASP △박도규14 △장기원5
△채수철15
◆IFP △배양숙2 △이호진5
◆BCP △윤경주4 △최무순3

일 반

◆인문대 △강우석84 △강은수05
△김정은06 △김현동04 △노민혜08
△박창수05 △변원일67 △심윤남82
△오승하07 △이상근97 △장수현98
△정윤홍03 △정종훈04 △정지윤06
△채래목04 △최완석98 △홍재범86
◆사회대 △공준호03 △김광덕82
△김규수87 △김일권05 △김준희06
△김찬동84 △김혁래98 △김현균03
△김효진07 △문지혜06 △박광호80
△박병진83 △방동욱00 △배연희87
△서동희03 △서인석92 △손종원81
△안재완86 △안준현91 △오세인07
△원영준90 △윤여경83 △이민경05
△이수민07 △이승호05 △이재섭03
△정호정05 △최문성04 △최창희03
△홍나리04
◆자연대 △김광영86 △김준식91
△김지환92 △김진복74 △김태윤05
△박대열68 △박영일02 △박유나96
△박태근08 △박태욱95 △박혜령00
△손지훈04 △송교홍00 △오명철04

△윤은영03 △이기원77 △이미선08
△이병홍66 △이용학74 △이정훈04
△이준영81 △이지희84 △임병호05
△장우진06 △정광필85 △조기운08
△조성현08 △조준형03 △주성재08
△채현우07 △최인호08 △최진혁71
△허기수97 △황열순86
◆간호대 △김기자56 △김다영07
△김혜원07 △조문숙84 △조익준04
△최진아07 △홍여신51
◆경영대 △박용환72 △서동규84
△서학수82 △이용석85 △이준한02
△임성균77 △장호준01 △정광우04
△조형수99 △질소드06 △최광천06
◆공대 △강봉돈71 △강인구73
△강창범08 △고항규68 △곽재근03
△구정모93 △구형모79 △권순학64
△권오석60 △권은구02 △김대식06
△김돈건99 △김동철00 △김병호89
△김상규59 △김상식58 △김성민03
△김성혜07 △김언기05 △김영식72
△김영취55 △김용백61 △김용인66
△김유희57 △김윤수75 △김주민91
△김준수03 △김창락78 △김철호85
△김통호70 △김현중70 △남궁석52
△류지현92 △류철호92 △문제춘71
△문준영06 △민정근52 △박기철72
△박범우06 △박용승54 △박유나05
△박정주78 △박준현07 △박중용08
△박형호54 △배오섭72 △백승석49
△백용현48 △백창기02 △서두석71
△손진우08 △송영수01 △송재규55
△송재학05 △신현식50 △심형섭05
△안학수50 △양현수08 △엄승호78
△연상호83 △염규섭56 △염희택46
△오 훈95 △유경진07 △유승현99
△유재석08 △윤경목01 △윤형돈94
△윤혜림87 △이 석47 △이기화53
△이석규57 △이승욱56 △이영우58
△이용현08 △이용희71 △이원모00
△이인희56 △이일환55 △이재준03
△이종수65 △이주익80 △이지성02
△이창민02 △이창복56 △이창수08
△이창룡61 △이현식61 △이현웅01
△임동현07 △임재준56 △임채원04
△임태원47 △임형준04 △장근홍96
△장명섭83 △전경식06 △전영동05
△전유정08 △전현철07 △정근재08
△정동섭64 △정병호05 △정상구73
△정인수73 △정재준90 △정종호01
△정치권60 △정호규80 △조승제56
△조영근67 △조태익78 △최경세88
△최규식00 △최석주51 △최성범05
△최정근65 △편도권54 △한겨레08
△한정빈63 △한창석68 △한택상70
△허 준04 △허병호08 △현 철05
△홍훈기00 △황준기67

분 담 금

◆미주동창회 1만1천달러

6 월 계 :	84,420,000원
평생회비 :	71,900,000원
입 회 비 :	570,000원
총 계 :	646,749,000원

(지면관계로 농과대학 이후 단과 대학(원) 및 특별과정 일반회비 납 부자 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대한민국 행복보증, 대한주택보증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 대한주택보증!
주택청약하시는 분을 위한 주택분양보증에서
주택사업하시는 분을 위한 미분양매입사업까지
대한민국 주택건설 파트너
대한주택보증이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대한주택보증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보증·부동산금융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토해양부



내 집 마련 지킴이
대한주택보증

서울대 출신 대한주택보증 가족 소개

전대현(경영학) 김건태(중어중문학) 이철완(농경제학) 윤영균(독어독문학) 최우석(사법학) 권혁신(행정학-석/박사) 김재은(종교학)
이승제(법학) 최보승(농경제학) 배재영(경영학) 김대열(경영학-석사) 이제철(법학) 정수연(행정학-석사) 김용한(경영학)



<http://banking.nonghyup.com>

대한민국 금융의 자존심!

고객님 행복을 위한
오직 한 길을 걷겠습니다



I am Korean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농협선물 NH-CA자산운용